

사랑의 쌀 나눔 운동 현재까지 8만440불 모금

교계 · 한인사회 연합해 지역사회 돕기

매년 교계와 한인사회가 함께 하는 사랑의 쌀 나눔운동이 12월 25일 현재까지 총 8만440불을 모금했다.

나성영락교회, 주님의영광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등에서 1차 배부가 이뤄졌으며 지난 22일에는 LA 총영사관에서 배부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남가주교협, 남가주목사회 임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쌀을 배부하기도 했다.

이 운동은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홀리클럽이 주관하고 LA총영사관, 한국일보, 중앙일보, 우리방송, 미주복음방송, CGNTV, 남가주교협, OC교협이 주최했다. 나눔 대상은 사회복지기관, 생활보호 대상자, 독거노인, 개

인신청자 등으로 총 1만명에게 쌀 1만포 배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29일 총영사관 주차장과 주님세운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벨리연합감리교회, LA종교평화협의회, ANC은누리교회, 한인회, 드림교회, 충현선교교회를 통해 배부가 이뤄질 전망이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 관계자들은 지난 11월 8일 LA 총영사관에서 '2012 사랑의 쌀 나눔 운동' 공식 출범식을 갖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적극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개인 및 단체, 교회들의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운동



LA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총영사관에서 사랑의 쌀 나눔이 이뤄졌다. 한인들은 물론, 여러 타인종들도 이 자리에서 사랑을 전달받았다.

은 남가주뿐 아니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등 타주에까지 쌀을 전달한다. 미주성서화운동 이성우 상임본부장은 "매년 10만불에 해당하는 쌀 1

만포를 전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많은 후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성금 보낼 곳) 500 Shatto Pl. #315,

Los Angeles, CA 90020 (Pay to: Holy City 사랑의 쌀) 문의: 213-384-5232 토마스 맹 기자

올해 밀알장학금 15만8천달러 수여

12년간 149만6600달러 전달해 감동



지난해 열린 장학금 전달식. 당시에는 96명의 학생이 16만8천4백불을 받았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과 밀알장애인장학복지위원회가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총 15만 8600달러를 27일 오전 11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수여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미주 장애인 장학금 14명에게 각 3600달러씩 총 5만4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아울러 근로복지생 7명에게 각 3600달러 총 2만5200달러의 장학금

을, 꿈나무장학생 33명에게 각 1000달러 총 3만3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밖에 한국장애인장학생 10명과 제3국 장애인장학생 10명에게도 각 1000달러씩 총 2만달러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주최 측은 또 장애인 선교사역자 육성 장학금 총 2만달러를 10명에게, 긴급지원 대상 추가기금 총 1만달러를 10명에게 전달한다. 문의: (714)522-4599 정한나 기자

남가주목사회, 46대 회장단 이취임식

김영대 목사 이임, 이운영 목사 취임

제 46대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2013년 1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에 한미장로교회(이운영 목사)에서 열린다.

이취임식에서는 45대 회장인 김영대 목사가 이임되고 46대 회장에 당선된 이운영 목사가 취임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6일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린 목사회 정기총회에서 단독으로 공천을 받은 이운영 목사는 총회에 등록된 25명의 회원 중에서 22명이 찬성해 46대 남가주목사회 회

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운영 목사는 당시 총회에서 "앞으로 목사회는 목사 회대로 가깝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미기

독교회관 건립건은 실질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전 회기 수석부회장인 김영모 목사가 이번 회장에 공천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김 목사가 한국으로 목회지를 옮김에 따라 목사회는 긴급히 임시총회를 지난 7월 열고 이운영 목사를 수석부회장으로

출했다. 그러나 이운영 목사까지 한국으로 귀국함에 따라 목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이운영 목사를 공천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당선됐다.

46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운영 목사, 수석부회장 정종윤 목사, 부회장 백지영 강순영 강종민 고재원 김기동 김병용 박선국 김영석 김원라 김은목 김철 박만순 박병구 박은종 서요한 신종은 심병구 안광식 엄규웅 오우석 이성도 이우형 이철훈 이춘준 임의치 목사, 총무 곽부한 목사, 서기 박성재 목사, 회계 서종운 목사, 감사 고주모 이호현 목사.

토마스 맹 기자

다음 주는 정기휴간입니다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 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 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 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비싼 집전화 요금! 몰랐다면! 이제 바꾸자!
 행사기간: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모르셨습니까? 아이토크비비는!
 ▶ 미국·한국 포함 27개국 무제한 통화
 ▶ 휴대폰에서도 국제전화 무료(매월 500분)
 ▶ 미국 전화번호·한국 070 번호 동시 제공
 ▶ 365일 한국어 서비스센터 운영
 ▶ 30일 환불보장 실시

또 다른 선택 **최대 無 + \$100**
 계약기간도 없다
 개통비도 없다
 크레딧 보상

딱 14일간 6개월 무료 혜택
 글로벌 플랜,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한함 / 2년 계약

패밀리 알뜰 플랜 \$4.99/월
 ▶ 미국 최저가
 ▶ 수신 무제한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기존 전화번호 이전 가능

글로벌 플랜 \$24.99/월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환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LA 직영점 (코리야타운 갤러리아 304호)
아이토크비비 213.559.7557 |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아·이·토·크·비·비 iTalkBB **30일** 품질의 자신!
 환불 보장!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 6개월 무료 : 글로벌플러스플랜과 글로벌플랜 2년 계약 가입자에 한해 계약 기간 만료 후 적용됩니다. ** \$100 크레딧 : 글로벌플러스플랜 가입자에 한해 \$100 크레딧을 드립니다. 그 외 가입 플랜에 따라 해당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1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본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요금들은 \$200 선납금(deposit)을 포함합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3개월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기 사용 시 추가 요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미국 유선망에 적용되는 Applicable Regulatory/Compliance Fees and Charges(가산요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서비스 센터에서는 월 요금(\$9.99)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미국 유선망에 적용됩니다. 어떤 플랜이든 가입 기간 동안은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플랜이든 가입 기간 동안은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기타 서비스 이용 및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프로그램은 2012.12.18일부터 2012.12.31일까지 운영되며, 2013.1.1일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T)

“때리면 맞고, 죽이려 들면... 그게 선교다”

복음 전하기 힘쓰는 성광장로교회 이상훈 목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핍박과 박해의 연속이다.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도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있던 기독교의 본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시작되면서부터였다. 성광장로교회 이상훈 목사의 선교에 대한 시각은 진지하다 못해 비장하기까지 하다. 그는 “선교사의 자제는 핍박 받으면 핍박 받고, 맞으면 맞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라고 한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88년 이민했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와 샌프란시스코신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해외한인장로회 서노회 노회장으로 있다. 성광장로교회에 4대 목사로 부임해 목회한 지는 9년 됐다. 성광장로교회는 36년된 교회다. LA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사명감을 갖고 목회하고 있다.

-교회 자랑을 한다면.

성도들 모두가 성숙한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 영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전도와 세계 선교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전파, 그리고 다음 세대에 바른 믿음을 전수해 교회를 이어 나가게 하는 2세 교육 사명에 주력하고 있다.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를 배출하고 소그룹의 목장 가정모임을 통해 가정예배의 회복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또한 새벽기도와 중보기도의 영성 사역을 통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참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데 목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면 선교와 교육과 모든 사역이 다 회복되리라 믿는다. 가정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정예배 매일 안내서를 제작해서 성도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가정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나.

두 가지 방향을 지향한다. 성경말씀을 일독하는 것과 가정예배의 신학적 초점을 만민제사장 직에 두는 것이다.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다. 미국에서 사는 가정 중 매일 전구

성원이 모이는 가정은 많지 않다. 저녁이 아니면 모이기도 힘들다. 그러나 한 명이라도 가정예배를 드리면 가정을 누르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는다.

-가정예배, 소그룹 모임 활성화 방법은.

우리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소그룹 목장을 운영하는 바로 전 단계인 목장 주일 성경공부가 있다는 점이다. 전에 목회하면서 가졌던 질문은 왜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만 주일성경학교가 있고 어른은 성경공부가 없을까였다. 고민하다가 전교인 주일 성경공부를 실현시켰다. 유치부에서 어른까지 각 목장별로 주일성경공부를 한다.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성경공부는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한 시작 과정이다.

이제 진행돼야지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교재는 자체 제작하고 있다. 내가 먼저 순장들을 가르치고, 순장들이 한 주 동안 공부한 후에 순원들을 가르친다.

-성도들의 변화되는 모습이 보람 있을 것 같다.

변화되는 모습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영성이 성도들에게 임해서 변화된다. 참여율이 꾸준한 성도들 비율은 80% 이상이다. 거의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다고 들었습니다. 선교 현황은 어떠한가.

선교에 헌신하는 일꾼이 100명, 튼튼한 일꾼들이 많다. 파송선교사가 있고 7명의 후원선교사가 있고, 매년 단기선교를 지난 10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선교 비전은 1년 12달, 매달 1팀씩 단기선교를 다녀오는 것이다. 장기적 비전은 각 목장이 파송선교사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실력을 갖추고 싶다.

한 가정의 파송선교사로 C국에서 8년째 선교하고 있다. 이 가정은 피아

노와 영어학원을 통해 학원선교를 펼치면서 일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독창적 사역이라 할 수 있다.

또 터키, 볼리비아, 파키스탄에서 선교를 많이 하고 있다. 10년 동안 고정적으로 멕시코에 가는 단기선교팀이 있다. 단기선교를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가 유익이 있다면 주민들이 우리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선교사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보통 1~2년 하다 관두면 선교사를 접대하는 수준에서 끝난다.

오랫동안 한 곳에 선교하다 보니까 성공교회는 확실하다는 증거가 나오고 선교지 부근 이웃들과 가족같은 분위기가 된다. 그 열매를 최근에 깨닫게 됐다. 똑심있게 가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 같다.

선교팀의 팀장은 청년 그룹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현재 팀장은 청년이 하고 있다. 이틀만 팀장이 아니라 설교, 인도 등 6박7일 동안 팀장이 전반적인 계획을 이끈다. 한 팀을 세 개조로 나눠서 VBS 사역, 봉사사역, 전도사역을 펼치고 있다. 각 조 조장은 따로 있고, 선교사들이 지시 사항을 내려주면 건축과 같은 것은 봉사조가 앞서서 하고 교도소·원주민 전도는 전도조가 나가는 형식이다. 우리는 그 교회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VBS를 한다. 100명 정도 VBS를 하면 정착률은 50% 정도이다. 멕시코는 가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자녀가 교회에 나오면 부모는 자동으로 나온다. 그러면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보통 한번 가면 2~3개 교회에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고 돌아온다.

-한국교회 혹은 한인교회의 선교 방식이 다소 과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

지금 한국교회는 선교의 열이 식어지고 있다. 그것은 선교 가치를 마치 유행처럼 생각해서 그렇다. 거품이 빠지고 있다. 나는 선교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을 병행해야 한다고 믿는다. 내 목회관은 “선교는 순교할 각오가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다. 때가 되면



이상훈 목사

하는 어떠한 선교 프로그램 같은 것이 되면 안된다. 우리 교회에 배출되고 있는 선교 헌신자는 죽음을 무릅쓸 각오가 있는 헌신자들이다.

한국교회와 정치적, 군사적으로 위협한 곳에 선교를 가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병든 것이다. 위험한 지역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내시는 곳에는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다. 세상을 두려워 하는 선교가 되면 안되고, 세상이 두려워 하는 선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핍박 받으면 핍박 받고 맞으면 맞고 죽이면 죽는 것이 선교사의 자세라 생각한다. 요즘 교회들의 잘 못된 시각이 있다면 순교를 뼈다귀하게 보는 것이다. 순교는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화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제물로 받는 것이다.

선교는 악한 영과의 전투다.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악한 영이 온갖 방법으로 역사한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붙잡힌 자들이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가서는 담대해야 하고,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된다.

-지역사회 봉사도 열심이라고 들었습니다.

홈리스 사역을 펼치고 있는 울타리선교회를 후원하고 있다. EM에서는 홈리스 예배를 봉사하고 있다. 또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을 대상으로 부모님 선교를 후원하고 있다. 우리는 이웃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이웃 섬기기의 일환으로 LA시 투표 등 커뮤니티 행사에 교회를 개방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대한 신학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는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 골프 체조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학사과정 모집
전공과목: 골프, 체조, 태권도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문의전화: 골프 310-598-0746
체조, 태권도 323-608-1010
-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
■ 골프를 배우고 싶은 어린이(7~11세)환영 (픽업가능)

문의전화 :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주소 : 3128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품으로 녹아나오지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제46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취임식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제 46대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단 이·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3년 1월 3일 (목) 오전 10시30분
장소 한미장로교회
929 S. West lake Ave., L.A., CA 90006
문의 교회 (213)739-8824

회장단

- 회 장 : 이운영
- 수석부회장 : 정종운
- 부 회 장 : 백지영 강순영 강종민 고재원 김기동 김병용 김선국 김영석 김원락 김은목 김철 박만순 박병구 박은중 서요한 박호식 심명구 안광식 엄규웅 오우석 이성도 이우형 이철훈 이춘준 임의치
- 총 무 : 꺾부환
- 서 기 : 박성재
- 회 계 : 서종운
- 감 사 : 고주모 이흥현

남가주한인목사회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사람을 품으라” 박희민 목사가 들려주는 목회 지혜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이며 미주 한인교회 지도자이자 영적 거장인 박희민 목사가 <사람을 품으라(두란노)>를 출간했다. '중재에 탁월한 박희민 목사가 들려주는 목회의 지혜'를 표어로 내건 이 책은, 박희민·임윤택 목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출판 소감을 밝히는 박희민 목사

이 책은 두 공동저자가 대담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크게 7장으로, △목회철학의 지혜: 사장이 아니라 농부처럼 헌신하라 △자기 관리의 지혜: 사역을 즐기면 탈진도 비껴간다 △갈등 해결의 지혜: 사람을 품으면 부드럽게 해결된다 △탁월한 설교의 지혜: 말씀, 문화, 회중을 이해하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지혜: 예배는 선교로 이어져야 한다 △다문화 목회의 지혜: 다양한 갈등을 긍정으로 품으라 △아름다운 은퇴의 지혜: 사람 키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20일 오전 7시 30분에 옥스포드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출판기념 감사예배에는 이른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250여 명의 목회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왕하 4:9)을 제목으로 설교한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는 "박 목사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주 평범한 물건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

면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선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며 "또한 목회자는 소명 안에서 충실할 때 거룩해진다. 박 목사는 지금껏 하나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사셨다"고 말했다.

'내가 본 박희민 목사'란 메시지를 전한 박성민 목사(아주사파서픽신학대학 교수)는 "박희민 목사님은 비둘기같이 온화한 성품으로 많은 분들의 중재를 맡으시고 이민교회를 섬기신 분"이라고 했다. 최경욱 목사(뜨갯사 선교교회)는 "아버지 뻘 되시는 박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위로와 힘이 된다"고, 임윤택 목사(풀러·윌리엄캐리신학대 교수)는 "목사님을 삶으로 본받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정명 목사(미주평안교회)는 축사에서 "책으로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것

은 귀한 일"이라며 "원만한 인격을 가진 박 목사님은 후배 이민목회자들이 닮고 싶은 목회자"라고 추켜세웠다. 또 이날 아침식사를 제공한 장도원 장로(Forever 21 대표)는 "최근에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는데, 박 목사님은 별 때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다.

출판 소감 및 감사의 말씀에서 박희민 목사는 "오늘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은 부족한 자를 격려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민목회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책을 냈다. 한국교회는 역사상 큰 위기라고 생각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2명만이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저서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미주 최대 한인교회 중 하나인 나성영락교회의 은퇴목사다. 2003년 나성영락교회 은퇴 후 후임 목사를 위해 원로목사로 남지 않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 아름다운 은퇴의 모델이 된 바 있다. 그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프린스턴대학교를 졸업한 뒤 토론토대학교(목사신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나성영락교회 임시당회장 및 새생명 선교회 대표, GEDA국제선교회 이사장, KCMUSA 이사장, 미주성서화 대표회장, 본지 편집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독거노인 행복잔치 성황리 마쳐

외로움 떨쳐버리고 훈훈한 시간으로 진행돼



독거노인 초청 행복잔치 참석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든그로브에 소재한 비영리 단체인 실버아카데미(원장 곽소건 목사)가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독거노인 초청 행복잔치'를 20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실버아카데미에서 개최했다.

이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청받은 독거노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참석했다. 아카데미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준비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외로움을 떨쳐 버리고 훈훈함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행사는 1부 인사와 나눔, 2부 아침찬양과 건강체조, 3부 어린이·청소년들과 함께한 캐롤과 피아노·바이

올린 연주 공연, 4부 행복나눔 특별 공연으로 하프 독주, 오키나·하모니카 중주, 가야금 독주, 댄스 타임, 즐거운 노래 시간 등이 있었다. 5부는 점심식사와 축복의 시간을 통해 사랑의 선물 증정식이 있었다.

곽소건 목사는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노인들 중에 외롭게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젊은 사람들도 이민 생활에 장벽이 많아 어려움이 많은데 연로하고 연약한 노인들은 삶의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분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선물로 드리고자 잔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싱글 패밀리 "힘내세요 사랑해요"



싱글 패밀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사정을 나누며 위로를 주고 받았다.

FBM(가정을세우는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애써 온 한 부모(single parent)와 그 자녀들을 위해 지난 14일 제7회 싱글 패밀리 뱅킷을 개최했다.

뱅킷은 예배 및 식사 교제,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이 위로와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싱글사역 전문주 디렉터는 "여년과 다름없이 한 부모 가족들을 잠시

라도 즐겁게 해 드리며 정성어린 선물과 식사로 섬기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또한 탈북신학교의 서니 송 박사가 마련한 '장한 어머니 상' 시상식도 있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로렐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은누리교회, 미주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LA 비전교회 등에서 참가했다.

토마스 맹 기자



박희민 목사의 <사람을 품으라> 출판 감사예배에 참석한 한인교회 지도자들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유크퍼미트와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맨드레이크, Wilshire

박근혜 당선인의 종교 관련 정책 어떤가

사학·대북·윤리 등 문제에 보수적 입장 지지할 듯



박근혜 당선인.

대한민국 제18대 대선 박근혜 당선인은 앞으로 종교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펼까. 한국교회 주요 단체들이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 당선인에게 보낸 기독교 정책 질의서에 대해, 그가 답한 내용들을 살펴봤다.

한국교회 기관들은 박근혜 당선 후 보에게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대북관계 ▲종교자유의 보장 ▲동성애와 낙태, 안락사 등과 관련한 정책을 공통적으로 질문했다.

◆종교사학=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과 관련해 박 당선자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인정하고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노무현 정권시절 종교법인의 자율적 운영과 종교교육을 위축시키려는 사학법 개정안은 당시 한나라당이 대여투쟁을 통해 완회시킨 적이 있다”며 “종교사학의 투명성과 건강성을 함께 추구해 나간다면 종교교육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울러 밝히기도 했다.

◆대북관계=이어 대북관계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하며, 경제사회 발전과 정치 안보협력의 조화와 균형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

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신뢰와 공존, 화해의 기초 위에 남북정상 회담을 개최, 대북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심한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박 당선인은 “특히 영·유아, 산모, 노약자들에게 우선적인 지원과 종교계에서 벌이는 인도적 지원의 대북지원도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지원이 투명성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종교자유=종교자유와 관련해 각 종교 간 관계에 있어선 “종교계가 한국사회가 가진 다종교 사회로서의 특징을 창조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종교 간 성숙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세계사적으로는 현재 문명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간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한 해안과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된 일명 종교평화법에 대해선 “종교평화법은 정부의 간섭 없이 종교 간에 대화와 신뢰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종교계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뤄질 수 없다. 정부는 종교 사이에 편향시비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종교재산=아울러 종단의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종단과 교회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종교단체의 재산은 명의신탁 금지 특례대상으로 관련법에 첨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가진 종교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종교유지재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최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소속 교회들이 실제 재산의 처분권은 교회가 가지면서도 그 명칭은 교단의 유지재단에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기성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교단들이 비슷한 형태로 유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어, 각 교단들은 자칫 이 문제가 한국교회 전체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 각 기관들은 대선 전 여야 후보들에게 이 문제를 일제히 질문했다.

◆동성애 및 생명윤리=다음으로 오랜 논쟁의 대상인 동성애 문제와 관련, 박 당선인은 “동성애자들에게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하되 동성애자를 합법화하는 법률제정은 반대”라는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다. 낙태에 대해선 “태아는 비록 세상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다만 모체나 태아의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경우엔 엄격한 기준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임산부 영양관리사업 확대, 한부모 가정양육비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이 밖에 안락사 및 존엄사에 대해서도 “윤리적·종교적·법적·의학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형제는 “사회의 법질서를 세우고 형평성에 대한 경각을 되므로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당선자는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및 활용 지원 ▲종교 관련 예산의 공평한 편성 ▲공직자의 개인적 종교자유 보장 ▲국가와 공공단체의 토요일 시험 실시 추진 ▲선교사역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책 강구 등을 약속했다. 김진영 기자

가깝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월드타운기도원

LA 피코+벌몬에 위치, 최근 성령 역사 일어나



월드타운기도원의 내부 전경.

보통 기도원을 생각하면 도시에서 좀 거리가 있고 한적한 곳을 떠올린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기도원을 가기에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민 생활이 바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들이 쉽게 찾아 기도하고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기도원이 LA 한인타운 내에 있다. 바로 월드타운기도원(원장 이엘리사 목사).

최근 이 기도원에서 믿지 못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9월말 즈음 찬양집회 중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도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월드타운교회 이모세 목사는 “앞자리에 앉은 권사님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제일 먼저 보았는데 처음에 두렵고 무서워서 말은 못하고 수근수근 했어요. 그때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의 형상이었어요”라고 밝혔다. 이 기도원에 출석하고 있는 하마리아 권사는 “사진을 크게 확대했을 때 주님의 모습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하나님께서 월드타운기도원을 사랑하심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됐다. 패역한 시대에 주님께서 ‘나는 살아 있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엘리사 원장은 “저는 1980년대 초 LA로 이민와 아가페교회에서 운영하는 아가페기도원을 많이 찾았고, 1992년 8월에는 암 말기로 사형선고를 받아 USC병원에서 진단 결과 단 1%도 살 수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고치셨다”며 “우리가 갈급할 때 찾는 곳이 기도원이라고 생각한다. 가깝고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월드타운기도원을 많이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월드타운기도원에서는 특히 신유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형제가 몇 주 동안 기도원에서 기도를 한 결과, 치료를 받고 학교로 돌아갔다. 또한 각종 우울증, 암, 종양병, 신경통,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치유받아 기도원에 출석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기도원은 365일 하루 4회, 새벽 5시 30분, 오전 11시, 오후 7시, 밤 10시에 기도모임 및 예배를 드리고 있다. 각종 시설 및 개인 기도실이 준비돼 있다. 문의) 1331 S. Vermont Ave. LA, CA90006/ 213-382-3258, 213-725-3007 토마스 맹 기자

TRACS 정회원된 복음대 감사만찬

재미 고신교단 직영신학교인 복음대학교(Evangelia University)가 내달 10일 ‘감사와 축하 만찬’ 행사를 갖는다. 복음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 학력인증 기관인 트랙스(TRACS) 정회원으로 승격된 데 이어, 목회학 박사 과정과 제반 프로그램의 원거리 교육 승인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고 행사는 이날 오후 6시 본교 강당에서 열린다.

학교 측은 “2013년도 입학기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박사 과정에 등록하

는 자에 한해서는 3년간 학비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만찬에 앞서 오후 4시에 입학설명회도 열린다. 참석자에게는 입학원서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2013년도 봄 학기 모집 학위과정은 목회학 석사를 비롯, 목회학 석사, 종교학 석사, 성경학 석사이며, 내달 21일부터 개강한다. 관련 문의는 전화 (714) 527-0691 또는 이메일 info@evangelia.edu로 하면 된다. 정한나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각악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뉘
증상별 처방/천연 한약제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여행자 보험 /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에-메타 플루판 로션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당뇨병,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미주 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봄학기 {입학생} 모집

미주 총신대학교는 지금까지 34회에 걸쳐 7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순수 교역자 양성을 목표로 한 개혁주의 신학대학교로서 재외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함동)의 인준신학교입니다. 초대 조해수 총장의 뒤를 이어 지난 30년이 넘는 동안 한국총신대학교와 한국성서대학교, 칼빈대학교에서 교수하신 개혁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김근수 박사께서 제2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이어가며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총장 김근수 박사 Keun Soo Kim ■약력 미국 남가주 신학대학(Southern California Bible College & Seminary, B. A.) / 한국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in Seoul, Th. M.) / 미국 칼빈 신학대학원 신학석사(Calvin Theological Seminary in Grand Rapids, Th. M.) / 영국웨일즈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Univ. of Wales Graduate School in U.K, Ph. D.) 미국 예일대학교 교환교수 (Yale Univ, Divinity School, Research Fellow) / 한국 아프리카내지선교회(AIM) 대표이사 ■경력 한가람 교회담임 현 한울교회 담임,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설교대학원장 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현 개혁신학회 회장

이사장 김연도 박사

2013년 봄학기 개강일시 : 2013년 1월 28일 (월) 오후 7시

대학 학과 및 학위과정

- 전문학사 과정 - 여교역학과(2년제) : 교회 사역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 사명자(Diploma 과정)
- 학사과정 - 신학과, 선교학과, 음악과, 기독교 교육과(4년제) : 고등학교 졸업자

신학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과 및 학위과정

- 목회신학 석사(M.Div.) - 3년 6학기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하고 소지자로 세계교인
- 일반대학원 - 2년 4학기 : 신학전공, 선교학 전공, M.Div. 소지자 M.A.(선교학 전공, 기독교 교육전공) M.C.M(교회 음악 전공)
- 박사과정 - 2년 4학기 : D, Min.(목회경력 3년 이상의 M.Div. 소지자) Th.D.(Th.M.소지자) D.C.Music(M.A 소지자)

본교는 주정부에 등록된 대학입니다. 입학과 편입생을 위한 각종 장학혜택 (총장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총회장 장학금, 한울장학금, 영화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타주 또는 타국에서도 Internet이나 통신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원서교부 및 접수중에 있으며 합격여부는 개인 면접 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함동) 제97회 총회에서 본교를 해외인준신학교로 처리하도록 5인처리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미주총신대학교 동문(가족) 골프대회
주최: 미주총신대학교 / 미주총신대학교 동문회
일시: 2013년 2월 11일(월) 장소 및 회비: 추후통보
*참가신청 문물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교회 주일예배: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예배안내 장소: 총신대학 채플실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 School of Theology
· School of Mission
·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 School of Church Music

미주총신대학교
총장 김근수 박사 (Th.M. Ph.D.)
2975 Wilshire Bl. #300, L.A., CA 90010
TEL: 213.487.1010 FAX:213.487.3303
I-TEL: 070-7019-1011
www.chongshinusa.edu e-mail : info@chongshinusa.edu

SEVIS I-20 본교발행

하나님의 자비로 얻는 구원

시편 130편 1절 - 8절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최악의 근성을 피로 이어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악취미를 삶에 어떤 낙으로 즐기면서까지 살아 온 것이 아담의 후예, 온 인류의 생리적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 잘난 멋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한 실패와 절망, 감당할 수 없는 부담과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가 '나는 이것밖에 안되었구나'하고 얻어지기는 했었는데 일으켜 줄 자도 없고 스스로 털고 일어설 힘도 없을 때에 그 인생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잘 반성해 보노라면 '아! 내가 어리석었고 또 무능했고 또 우유부단하고 지나친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너무 허욕이 앞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자신의 신체를 망치고 얻어졌지만 스스로 떨치고 일어날 힘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더 이상 가능성을 기대할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럴 때 인간은 가장 솔직해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고 싶어서 낳은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심으로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왜 낳게 하신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공감할 이루어 온 종교 심리라고 하는 것인데 흑인, 황인, 백인 차별없이 사람으로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되어있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영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지극히 깊은 절망에, 몹시 다급한 상황에, 죽을 지경에 몰리게 되어서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유인원이라고 해서 인류의 조상이라고 다윈이 별소리를 했지만 이제 21세기 과학은 그것도 헛소리였다고 취급하고 미국에서는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문이 나왔는데 이것은 곧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가장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에 그 결과는 내가 책 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허세 떨고 광내는 거 보고 나도 몽키 스타일로 원숭이 흉내내는 식으로 빛이라도 얻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웃이 낡기도 전에 빛이 숨통을 조여 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지나친 과시적 허세가 자기 인생에 엄청난 부담을 지게 했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숨통을 조르는 오라줄에 얽혀 매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물리적 어떤 사치품으로 단장하려 하지 말고 진리와 성령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최고로 아름답다 하시고 그 사람은 얼굴에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뜨거워질 때 보름달처럼 스마 일하게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르는 노래인데 본문 1절에 있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의 깊은 데라고 하는 곳은 바다 밑바닥이 아니고 자기 인생이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시달리다 못해 죽을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의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끓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비로 얻는 구원의 도리'를 이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몰랐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깊은 절망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랐을 것이고 부르짖을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자기 너무나 깊은 절망과 고통과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자기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큰 장애물이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엄청난 거대한 장벽으로 가로 막아놨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어져서 그물을 내렸더니 한 그물로 두배를 채워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만 그 사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계속 모시고 살면 수지 맞겠는데 불행하게도 나는 죄가 많은 인생이라 모시지 못할 것이라는 양심의 가책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참회가 베드로로 하여금 얼마나 비참한 회개로 통곡하게 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내 사정을 들어주시고 자비와 긍휼로 날 건져내시고 살려주시라고' 하고 있는데 제일 크게 부담되는 장애물이 자기가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밤에 깊은 골방에서 무슨 짓을 했던지간에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같은 눈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 숨길 수 없는 죄인이라 그런데 그 죄를 감찰하신다고 하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

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값도 내가 치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벌 받아 주신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 이름 의지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하시고 "너는 이제 회개했으니 내가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 졌느니라. 그래서 너는 의로워졌다. 너로 내 아들, 딸을 삼으리라.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서 너로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살게 하고 하늘나라까지 데리고 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셔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나를 감찰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희생양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책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고, 또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회개하고 긍휼을 호소하며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아들을 희생시켜서 이 죄인 괴수들이 회개만 하고 신앙고백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셨느냐? 그 이유는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다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알게 믿어지게 회개케 하시고 그가 회개해서 그 엄청난 지옥 형벌의 죄와 저주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을 때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엄청난 빛을 진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황송무지해 너무나 감사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어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대속하시어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 제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가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감동과 체험을 통하여 그 아들을 알아보고 대속의 은혜가 믿

어지고 성령이 회개 시키시는 대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죄 없는 의인의 자격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바 아버지 할 수 있는 아들, 딸의 신분으로 하늘나라 호적의 생명책에 등록시켜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갈 길을 지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것도 아니요, 교회 다니면서 할 짓 못할 짓 다하고 그런 식으로 사는 것도 아닌,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고 자녀의 구실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자를 세워서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자세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파숫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잠으로 파숫군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7-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 인자 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고 했습니다.

자기 문제도 이스라엘 전 국민들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이라서 이토록 자기도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모습과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보여주면서 이스라엘도 이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믿음이 되어 절망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남은 뜻을 이루실 지체나 그릇이나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로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쓰임 받는 모습 보자는 것이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미국	기독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념)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장: Sex420 발행/ 선교사 정착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 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BA, D.M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령에 대한 종합적 사교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부학장: 최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org

2013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1월 2일 (수)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여 창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및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운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눅 2:14)



영광빛 복음교회

담임목사 **우대권**

주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단신 및 동정

박성규 목사, 뉴욕 지역 신년금식기도 성회 주강사로 나서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가 내달 1일부터 3일간 이어지는 신년 금식기도 성회 주강사로 나선다. 이 성회는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가 주최하고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가 후원한다. 장소는 파인브룩 컨퍼런스&리트리트센터다. 문의: (646) 763-4211

1월 13일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미주한인재단, 다채로운 행사 마련

미주한인재단(전국총회장 박상원)이 내달 13일을 기해 한인 이민 역사 11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내달 7일 캘리포니아 주의회 KAD 기념선포식을 시작으로, 8일 LA카운티, 엘바인시, 글렌데일 시의회 선포식이 잇따라 열린다. 이어 9일에는 윌턴플레이스초등학교 현기식, 10일에 LA한인회 및 세리토스시의회 선포식, 11일에 LA시의회 선포식이 각각 열린다. 또한 오는 12일에는 남가주사망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기념감사예배가 열리며, 이번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합감사예배와 대합창제(전국대회)가 13일 제일회 종교회에서 열린다.

이어 14일에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리는 미주한인이민 110주년 기념만찬(전국대회)을 끝으로 모든 행사를 일단락 지을 계획이다. 문의: (213)

276-6692

OCU 신입회장에 장석운 장로 선출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OCU)가 지난 11일 정기총회를 갖고 신입회장에 장석운 장로를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2년.

장 장로는 육사 11기 출신으로 육군 중령으로 예편해 육사 교수를 역임한 바 있으며, 도미 후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베스트셀러 '복어알'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날 총회에서 기독교교회에 지도 목사 제도를 신설하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에 이기홍 원로목사(미주한국예비역 군목단장, 사우스베이선교회)를 지도목사에 선임했다.

한편, OCU는 매달 한 차례씩 미주 복음방송국 4층 공개홀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문의: (818) 905-9061

남가주주님의교회 1백주년 기념예배

1912년 10월 월넛 드라이브 길에 있는 페어뷰스쿨하우스에서 13명의 창립 멤버로 시작한 남가주주님의교회(Bell Memorial UMC, 담임 한의준 목사)가 지난 9일 창립 1백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타종식으로 시작한 행사에는 UMC 태평양연회 갈카노 감독과 동부지역 바우팅 감리사, 한인목회자 회장 오경환 목사 등 교단 관계자들

을 비롯, 6백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남가주주님의교회 한의준 목사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로 1백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지나온 역사를 토대로 앞으로 달려갈 새로운 1백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햇불기도원 제100회 특별기도회

햇불기도원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제100회 특별기도회를 갖는다. 햇불기도원은 1년에 대여섯 차례 발생하고 있는 무서운 산불도 피해 가는 기도의 동산으로 알려져 있다.

문의: (626) 419-6804

나이스크 모멘텀 컨퍼런스

예배회복을 위한 리더 훈련의 일환으로 '나이스크(NYSKC) 모멘텀 컨퍼런스'가 내달 17일부터 2박 3일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열린다. 지난 20여년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의 예배회복운동을 주도해 온 나이스크 세계선교본부(대표회장 최고선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 주강사로는 전남수 목사(GTS 교수, 제자들교회)와 강효열 목사(GTS 교수, 오하이오 데이톤 아가페침례교회)가 나선다. 관련 문의는 전화 (347) 522-1868로 하면 된다.

高취업률, 직장인 위해 메디컬 매니지먼트 저녁반 개설

750여 학생들 다양한 직업 준비 중, 취업률은 95% 달해

영어는 물론 다양한 직업 교육을 무료로 받을 뿐 아니라 졸업 후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학교가 있다. LA ORT College(The Organization for Education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Training). 이곳은 1880년에 설립돼 장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유대계 이민자들에 의해 개교돼 LA의 대표적인 비영리 사회교육 기관으로 발돋움했고 세계 60여 개국에 800여 학교를 두고 있다. 남가주에서는 개교 후 가장 큰 직업대학 중의 하나로 성장한 LA ORT는 현재 최고의 교육 시설을 완비한 대학으로서 뉴욕에 두 곳과 시카고, 남가주에는 윌셔길의 LA메인 캠퍼스와 벨리 등 2곳에서 운영 중이다.

LA ORT의 가장 큰 특징은 무료 교육.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영주권자 이상의 저소득층은 16개월 코스의 영어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6단계로 나뉘어 기초부터 고급 영어까지 가르친다. 문법과 어휘, 생활 영어, 고급회화에 이르기까지 매주 24시간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

중급자 이상은 종일 영어로만 말하고 듣고 쓰는 어드밴스 클래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한 클래스는 15명 이내로 구성돼 있어 집중도도 높다. 노인들도 학업 성취율이 높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한다.

LA ORT는 영어 외에도 다채로운 직업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수업이 진행되는 분야는 그래픽 미디

어, 칼리지 어카운팅,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일반사무직 및 비서직, 메디컬 매니지먼트 오피스, 메디컬 어시스턴트, 약사 보조직, 컴퓨터 그래픽 및 데스크탑 퍼블리싱, 컴퓨터 건축설계(CADD) 등 총 10개 분야로 여러가지 훈련 코스가 있다.

학생수는 본교에서만 약 400명이 공부하고 있고 벨리 본교에도 약 350명, 총 750명이 재학 중이다. LA ORT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높은 취업률이다. 현재 졸업생 평균 취업률은 90%-95%인데 지난 2010년도 불경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때에도 80%-85%였을 정도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했다.

프로그램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과정의 코스이며 단기 교육의 장점을 더해 칼리지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또 동시에 직업도 알선해 주는 것이 이 학교의 큰 자랑이며 특징이다. 특히 컴퓨터 병원 업무 클래스에서는 각급 병원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메디컬 빌링,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전문 행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메디컬 매니지먼트 오피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그래픽 미디어, 어카운팅 전공자는 1년 수강으로 칼리지 학위를 받을 수도 있다. 메디컬 매니지먼트 오피스는 오전반에 이어 21일에 저녁반이 개설됐다. 낮에 일하는 이들을 위한 클래스인 것이다.

또 이 학교는 GE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영주권자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클래스는 일주일에 두



LA ORT의 한인 담당자 그레이스 이 씨

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학교의 장학제도도 풍부하게 마련됐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원금뿐 아니라 학교를 세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도 꾸준히 장학금을 주고 있다.

한인 담당 그레이스 이 씨는 "여러 이민자 중 한인들의 열성과 교육 성취도가 가장 높다"면서 "그동안 정부 지원 비영리 사회교육에 다소 소외됐던 한인들에게 풍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클래스 시간표는 오전, 오후, 저녁 시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유학생들을 위한 입학허가서 I-20도 발행하고 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예약하면 편안한 상담이 가능하다.

문의: 213-703-6863(사무실)

323-966-5444(그레이스 이 씨)
토마스 맹기자

수술없이 암 치료... 에이즈 및 마약중독까지 완치

"3년 전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 서양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었는데, 한동규 박사님의 치료를 받고 완치됐어요."

온 몸이 조직검사 결과 전립선 암 세포가 75퍼센트나 퍼져 살 소망이 없었던 구기조 목사(암마누엘복음성교회)의 말이다. 그는 암 판정을 받고 무척이나 당황했던 당시를 회상하면서 "한 박사로부터" 치료를 받고 암 세포가 몸 밖으로 빠져 나와 완치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한다. 한 박사의 치료법을 따른 뒤 불과 3개월 20일만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처럼 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한 박사의 '암 치료법 전도사'로 발벗고 나서 활동 중이다.

한동규 박사는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하였습니다'의 저자로 잘 알려

져 있는 인물이다. 현재 스페인 암연구센터에서 일하며 스페인 자연요법 암 에이즈 마약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또 파나마 공화국 LACAS 대통령 주치의로 있으면서 난치 암환자들을 치료해 대통령으로부터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다.



구기조 목사

한 박사의 암 치료법은 환약과 주사로 이뤄진다. 환약은 38개의 성분으로 구성된 암세포만 멸절시킨다. 두 세계 외에 대다수의 성분이 남미 아마존 산골에서 추출한 것이다.

구 박사는 "현재 미국에서 이 환약

과 주사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거의 병이 호전되고 있다. 당뇨병의 경우 음식조절을 하면서 고생하기 마련인데, 이 약을 두 달 먹으면 거의 완치가 된다"면서 "약을 통해 각종 검사에서 정상수치가 나오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조금 더 있으면 병을 나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일반 병원에서 투여하는 항암제는 암 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같이 죽이는 반면, 이 치료법을 행하면 암세포만 찾아다니며 죽이면서 암세포 곁을 몸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뇨병은 물론 각종 암, 에이즈, 마약중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213)235-5800로 하면 된다.



참숯

크로버 탄소매트

숙면! 곰팡이 억제!
항균! 냄새 제거!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초극세사 원단 사용

고급스러운 풀잎 패턴으로
실내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전자파 차단

매트안에 전기선 대신 곰의소재
탄소원단이 들어가 있어 전자파 걱정을
없었습니다.

원적외선 방사율 90%

일반 전기요와 달리 원적외선 복사열 발산으로
몸 전체를 훈훈하게 하며 원적외선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세 절감

열효율이 뛰어나 전기사용료를 절감해 줍니다.
매일 10시간 사용시 한달 전기사용료 \$3미만

취침기능/온도조절기능

좌우 분리난방
10시간이상 사용시 자동꺼짐

물세탁 가능

세계 최초의 발명특허인 방수절연 기능의
특수 4중 "안전코팅"으로 물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세탁 권장)

매트 안을 비교해보세요!



TWIN	FULL	QUEEN	KING
\$249	\$289	\$349	\$429

크로버 탄소매트로
건강과 따스함을 동시에 선물하세요!



MANUFACTURER
1
YEAR
WARRANTY
확실한 품질보장
제품문제시 1년간 무상수리



제품 바닥면을
고급 원단에
도트 처리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Los Angeles
* 정스백화점 (213) 389-1111
* 김스전기 (213) 386-4882
* ABC 플라자 (213) 386-1155
* 헬스코리아
-아씨마켓 (213) 487-4986
-갤러리아 (323) 733-4986
* N SHOP (323) 734-1234

Fullerton
* 나눔 홈쇼핑 (714) 515-3408
* 헬스코리아 (714) 521-1005
Diamond Bar
* DB 홈마트 (909) 595-7521
Gardena
* Marukai (310) 660-6300
Torrance
* 굿네이버스 (310) 326-6666

Cerritos
* 이불나라 (562) 402-3737
Garden Grove
* 주방나라 (아리랑마켓) (714) 539-8860
San Diego
* 이불나라 (시온마켓) (858) 496-0766
* 굿네이버스 (858) 874-7777
Santa Clara
* 이불나라 (408) 834-3004

무료 배송행사

한국에 계신 부모님, 친지, 지인들께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최병수 목사

그동안 한인교계에서 실버 사역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달려 온 그레이스실버미니스트리가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역한다.

우선은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서의 등록을 마쳤으며 후원자들의 도움에 힘입어 한인교회를 섬기기 시작한다.

실버 사역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역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황금어장 실버 사역

그레이스실버미니스트리 본격적 사역 시작

지 모르는 교회를 위한 컨설팅 사역이 최우선 과제다.

지역교회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이 단체에서 교회를 방문한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 비전과 사명을 나누는 후, 그 지역 실버 사역의 현 주소를 파악한다. 통계, 면담, 사례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그 교회 목회 철학과 가장 잘 맞는, 그 지역 정서와 가장 잘 맞는 실버 사역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교회와 이 단체가 하나되어 남가주 지역에 각기 고유한 모델을 갖고 실버 사역을 수행하는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컨설팅 사역을 위해 최병수 목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국 및 미주의 교회들로부터 다양한 사례와 경험담, 과학적 분석 자료를 확보해 전문성을 갖췄다.

그리고 이미 실버 사역을 시작했지만 지역 사회 복음화와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들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등 현실적 고민을 안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주려 한다.

예를 들면, 교회 내 성도를 위한 실버 사역은 절저히 성경 공부 및 기도

회, 교회 봉사로 발전시켜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쪽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타 교회 성도 혹은 비신자를 위해서는 재미있는 놀이나 게임, 공부나 자기 계발에 초점을 두되 복음에 한발짝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는 식이다.

현재로서는 약 12개 교회가 이 단체와 후원 및 협력하고 있다. 최병수 목사는 "이미 실버 사역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한인교회들도 시급한 마음을 갖고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 없이 무작정 달려 들어서는 재정적 소모나 헌신에 비해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 관해 우리 단체가 가진 노하우를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비영리단체로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자료 제공 등에 있어서 특별한 비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그 교회가 정한 재정적 한도 내에서 실버 사역의 발전 및 각 교회 네트워킹을 위해 헌금을 받긴 한다. 최 목사는 "실버 세대 복음화에 뜻을 둔 교회들과 협력해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자"고 덧붙였다.

정한나 기자

비블리칼신학교 ACS 과정

성공적 신대원 이수 위한 선행학습 제공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비블리칼신학교(Biblical Seminary)가 최근 일반 ESL 과정과는 차별화된 ACS(American Cultural Studies, 구 ESL Plus) 영어 과정을 개설,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 ACS 과정은 미신학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영어코스를 통해 대학원 과정에 필요한 배경지식을 선행적으로 숙지하도록 디자인됐다.

ACS 과정은 1단계 3학기, 2단계 2학기, 3단계 1학기로 각각 구성돼 있다. 이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평가를 통해 별도 토플 성적 제출없이 본과로 바로 진학할 수 있다. 각 단계에서는 >대학원 과정 영어교육 >미국 대학 필수과정 교육 >신학영어교육 >미국교회 문화체험 교육 >본과 수업 연계교육 등 신학에 대한 개론뿐 아니라, 미국의 역사나 철학, 문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들도 포함돼 있다.

이 프로그램의 디렉터 오창훈 교수는 "현재 미국 내에는 한국인들의 입학에 허용하고 있는 신학대학, 대학원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예비신학생들은 영어의 장벽 앞에 자신의 꿈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개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유학생들이 대학원 수업의 상당부분을 놓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영어 문제가 아닌, 미국의 기본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

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사전에 교육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 "대부분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단순히 영어뿐 아니라 미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 문제 등으로 대학원 수업 자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과정은 이런 유학생들을 위해 1년여의 속성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공백을 메우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또 ACS 과정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물론 기숙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교회와 한인교회들의 연계로 미국인 가정이나 한국인 가정에 저렴한 가격으로 홈스테이를 할 수도 있다. 지원자격은 토플 점수에 따라, 단계별 지원 가능하다. 영어권 국가에서 1년 이상 학습한 경우에는 특별전형도 가능하다. 연계취득 가능 학위는 목회학 석사를 비롯한 신학석사, 목회학 박사 등이다.

원서접수는 온라인(www.biblical.edu)이나 우편(주소: 200 North Main Street, Hatfield, PA 19440)으로 할 수 있고, 이밖에 자세한 문의는 오창훈 교수에게 이메일(coh@biblical.edu)이나 전화(215-368-5000)로 하면 된다.

정한나 기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인랜드교협 주최 성탄축하 찬양의 밤 5개 교회 연합예배 및 축제



인랜드 지역 교회들이 한 마음을 모아 성탄의 밤을 찬양으로 수놓았다.

인랜드지역교회연합회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의 밤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수놓았다. 지난 23일 저녁 남가주웨슬로교회에서다.

인랜드지역교회연합회 소속 갖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를 비롯해 남가주웨슬로교회(박혜성 목사), 에덴선교교회(윤석길 목사), 인랜드교회(박신철 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마원철 목사) 등 5개 교회는 연합으로 1부 성탄연합예배를 드리

고, 각 교회 성가대가 나서서 2부 찬양제를 꾸몄다.

이날 설교는 류수열 목사(한울림교회)가 '은혜를 입은 자'(눅 2:15-20)라는 제목으로 전했고, 박종길 목사(인랜드영락교회)가 축도했다.

이날 참석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을 위해, 지역교회들을 위해, 2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정한나 기자

美 국민 77% “나는 기독교 신자”

신앙의 영향력은? 개신교 79% 이슬람 78% 가톨릭 70%

예배 참석율은? 개신교 81% 이슬람 64% 유대교 32%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인구의 77%가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52%는 개신교인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신자라고 답한 사람은 23%였다. 물론 교도 포함시킨 이번 조사에서는 약 2%가 자신이 불문교인이라고 답했다.

약 79%의 개신교인 혹은 다른 기독교인들이, 삶에서 신앙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무슬림 신자의 경우는 78%, 가톨릭 신자의 경우에는 70%가 이같이 답했다.

자신이 유대교라고 밝힌 사람들은 약 41%만이 삶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 한해 예배 참석 현황을 살펴보면, 개신교 혹은 다른 기독교인들은

약 81%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무슬림의 경우는 64%, 유대교인들은 32%, 기타 및 비기독교인인 경우에는 32%였다. 불문교의 경우 81%로 예배 참석률이 가장 높았다.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거나 아예 응답하지 않은 13%의 경우에도, 최소 1주일에 한 번은 종교적인 행사(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2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및 가톨릭 신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1% 가량 줄었으며, 기타 비기독교인들은 1% 증가했다. 불문교인, 유대교인, 무슬림들은 변동이 없었다.

강혜진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베스트 셀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저자 하득희 교수의 기적의 영어회화

베스트 영어훈련원

-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 23기 훈련생 모집
- 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완성하는 영어 훈련원
- 오랫동안 영어회화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초로 교육화한 훈련원

LA 한인타운	플러튼
훈련기간 2013년 1월21일(월)~ 2013년 4월 10일(수) 주 3회(월화수반/ 토요반) 훈련시간 주중반: 오전 10:00~11:40 저녁 7:30~9:10 토요반: 오전 9:00~1:30 무료설명회 2013년 1월21일(월) 오전 10시, 저녁7시30분 훈련장소 LA 베스트 영어 훈련원 3251 W. 6th, #101 LA, CA90020 (6가 + 뉴햄프셔) 등록비 580불(일시불, 교재비 포함) 접수 설명회 당일	훈련기간 2013년 1월22일(화)~ 2013년 4월 13일(토) 주 3회 (월화수반/ 목금토반) 훈련시간 월화수: 저녁7:30~9:10 목금토: 오전10:00~11:40 무료설명회 2013년 1월 19일(토) 오전10시, 저녁7시30분 훈련장소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92833 (Brookhurst & Euclid 사이) 등록비 580불 (일시불, 교재비 포함) 접수 설명회 당일

훈련대상

- ▶ 오랫동안 공부했으나 영어회화가 잘 안되는 분
- ▶ 직장생활과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회화가 절실하게 필요한분
- ▶ 미국사람만 보면 겁이나고 말이 안나오는 분
- ▶ 다 아는 내용인데 말이 안되는 분
- ▶ 라디오, TV가 전혀 안 들리는분
- ▶ 미국식 발음과 문법에 자신이 없는 분

기적의 영어회화의 특징

LA 제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기 훈련생들 격찬! 또 격찬!

뉴욕 한인들로부터 확실한 검증/뉴욕 한국일보 기자가 직접 참석을 통해 "바로 이것이다" 격찬 타운뉴스 기자 직접 훈련 후 격찬 / LA 다양한 분들 훈련 후 찬사 " 영어 훈련소" (김영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 강연회 폭발! 1년 해외 연수보다 더 효과적인 곳!

기적의 영어회화의 방법

- ▶ 가장 쉽고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중학교 1,2 학년 영어교과서를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 ▶ 눈으로만 해오던 영어방식을 입체적 방식으로 대전환
- ▶ 분석하지 말고, 단순히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공부하지 말고, 훈련하라!
- ▶ 책권권을 끝냈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음성학적인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발음문제 해결
- ▶ 단순 반복으로 문장이 생각과 동시에 흘러나온다.
- ▶ 시각, 청각, 구강근육운동을 통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하는 학습
- ▶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뇌리에 영어 코드를 만들어라!
- ▶ 시간을 길게 잡아 지쳐 포기하지 말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한국영어훈련소의 폭발적인 인기와 성과, 교육수주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하득희저음 영어훈련소(김영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spiritenglish.com cafe.godpeople.com/spiriteng

베스트 영어훈련원 (213)239-4815 (213)507-0691

애기봉은 평화 메시지, 정치 문제 제기 유감

주최측 관계자들, 기자회견 갖고 각종 논란 해명

지난 22일 애기봉 성탄트리를 점등했던 주최측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점등식과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 해명했다.

이번 점등식은 한국기독교목사원의회(총재 방지일 목사)와 탈북난민과북한구원을위한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목사, 이하 탈북교연),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신목 목사),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홍순경)가 주최했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탈북교연 사무총장 김충립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조현정 목사)가 성명을 통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하게 전달될 수 없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며 즉각 취소를 요구했던 데 대해 “기독교인 중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간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선교사도 있고,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선교관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조승현 평통사 평화건축팀장의 발언 중, “국방부가 박근혜 당선자에게 선물이라도 주려고 애기봉 점등 계획을 발표한 것 같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공개 사과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방부는 12월 11일 (애기봉 점등식을) 허가했고,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주최측에서 19일 선거 후 발표하자는 합의에 의한 것일 뿐 박근혜 당선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며 “이같은 표현은 국방부와 당선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

이밖에 주최측은 “점등 행사가 2004년 국가간 협약을 위반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영등포교회를 언급한 것은 교계 관행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충립 박사는 “북한에서 포격할 것이라고 하는데, 평화를 전하고자 하는 애기봉에



애기봉 성탄트리가 불빛을 밝히고 있다.

포를 쏘다면 그것은 전 세계에 대한 도전이기에 그것은 불필요한 격정”이라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일에 이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비기독교적·정치적이고 월권”이라고 했다.

김충립 박사는 교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이번 애기봉 점등식 행사를 주최할 수 있도록 여러 연합기관과 교회들에 요청했으나, 아무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탈북교연 등이 행사를 주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일단 예정대로 1월 2일까지 점등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 1954년 시작된 애기봉 점등식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중단됐다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재개됐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다시 중단된 바 있다.

류재광 기자

한국교회 강단 곳곳에서 2012년 성탄 메시지 선포

“상생과 통합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평화를”

성탄을 앞둔, 12월 23일 주일, 한국교회 강단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메시지가 선포됐다.

예장 합동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는 ‘자아 속에 계신 예수(요 5:1-9)’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실패를 실패로 아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비로소 실패에서 벗어나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도 실패를 통해 주님을 만났듯, 자신의 실패를 깨달을 때 절대자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길 목사는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재물이나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며 “그 예수님께서 불행하고 낙심하고 범죄한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했다. “성탄이란 내 옆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날이고,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우리 가까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며 “오늘도 우리를 지극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언제나 내 편이 되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고도 했다.

예장 통합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천사의 소리를 들으라(눅 2:8-20)’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의 오심은 절망과 슬픔, 가난에 찌든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됐다. 베들레헨 밖에 살던 목자들이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변화됐다”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변화시키신다.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무장해 남북통일의 시대를 열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김삼환 목사는 대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며칠 전 여성대통령이 선출됐다. 박근혜 당선자가 새마을운동을 실시했으면 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경제·선진사회가 되려면 정선문화를 새롭게 세워야 하는데, 과거 새마을운동에서 보여 준 통합과 전진, 비전과 리더십으로 국민의 열정과 각오를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기광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는 ‘주님, 교회에 오시옵소서(행 2:37-47)’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교회는 ‘모여 기도하기’와 ‘성령의 은

사를 사모하기’에 힘을 쏟을 것”을 전했다.

최 목사는 “이 땅에는 주님과 연관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 주님은 에베소교회를 향해 ‘첫 행위를 갖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셨다.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칭찬받아야 한다”며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은 모여 기도하며 성령받기에 힘썼고, 세상도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됐을 때, 세상 가운데 칭송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마음으로 성탄의 기쁨의 축제를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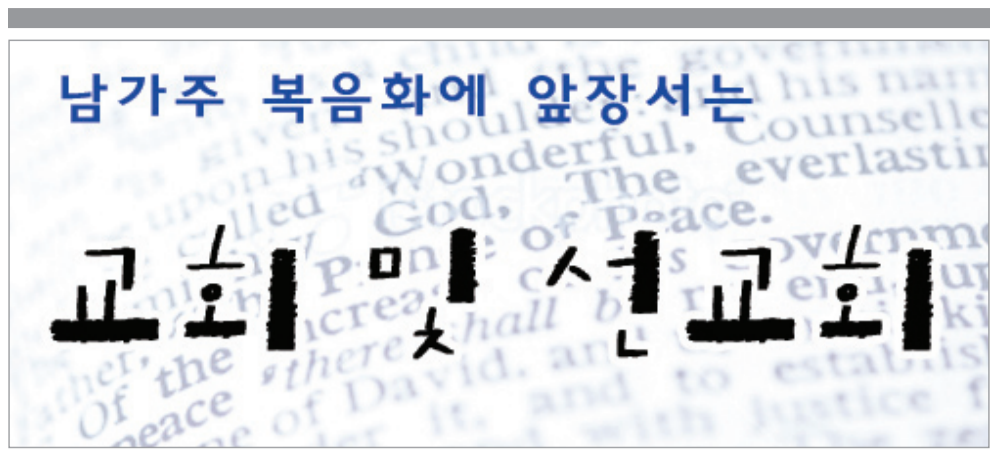
기장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는 ‘주님의 평화를(사 52:7-10, 빌 4:4-7, 눅 1:46-55)’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오케스트라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어울리고, 모든 악기가 다 자기 소리를 내야 아름다운 화음을 이룬다”며 “메시아는 2012년 오늘날로 보면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평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다.

그는 “이 세상에 전쟁과 폭력이 있고 암담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로 양보, 화합, 회개해서 이제는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생하고 통합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자”고 권면했다.

합동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세 가지 예물(마2:7-11)’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동방의 점술가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각각 왕권과 치유, 부활을 의미한다”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고 말했다.

기하성(여의도)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눅 1:68-75)’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영훈 목사는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구약은 장자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 신약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장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며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살아가던 우리는 이제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류재광 기자



LA 지역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p> <p>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션교회 믿음으로 그들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일도회 오후 7:00</p> <p>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p> <p>강진웅 담임목사</p> <p>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p> <p>4부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p> <p>박현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p> <p>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p> <p>김광삼 담임목사</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p> <p>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p> <p>김성민 담임목사</p> <p>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10:30 (수)</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6:30 (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p> <p>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p> <p>김요섭 담임목사</p> <p>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p> <p>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운타운 47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p> <p>김수철 담임목사</p> <p>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EM예배 오전 9:30</p> <p>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 오전 6:00</p> <p>최은형 담임목사</p> <p>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90006 T. (213) 388-1927, 388-2105</p>
<p>17기2수료생배출 현재3기수료생 양성중 -수기서로의료선교사 양성 -약물이나기구없이 온안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술</p> <p>박승부 장로</p> <p>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90005,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T. (213) 381-7273</p>	<p>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p> <p>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너지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p> <p>김혜성 담임목사</p> <p>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p> <p>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p> <p>김세환 담임목사</p> <p>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p> <p>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토요일새벽연합예배 오전 6:2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시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7:3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p> <p>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진료문의 213) 505-7067</p> <p>대표 김갑선 목사</p> <p>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금요일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오전 6:3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진 초 정신의 호를, 비론교회간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민중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p>
<p>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p> <p>강지원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p> <p>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오전 6:20(토)</p> <p>김기섭 담임목사</p> <p>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p>

2013년 플랜가입기간 (10/15~12/7)

치과, 안경, 한의원, 보철기, 처방약, 헬스클럽 회원권, Visa & Gas, 차량, MRI, CT촬영, 해외유급금 등

메디케어A와 B가 있으세요?

C플랜을 무료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오랜 경력과 많은 지식으로 내 몸을 관리하듯이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 의사 선택과 방문이 자유로운 PPO * 진료비 부담이 전혀 없는 HMO

무릎 상당 (323) 896-0202 Lic.#0G86101 Hanna Chan Ko **고한나**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9:30(화-금) 오후 6:00(토)
3부 오전 11:30

박석재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고태형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선한목자장로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전 11:45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리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2부예배 오전 10:00 오후 6:00(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6:00(토)
청소년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유/초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과 사명을 뜨겁게 사명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례주례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오후 1:00 오전 7:00(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후 6:00(토)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00(토)
한국어 오전 10시(월/목/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분당)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심형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제자훈련(수)오후 8:00
2부 청년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목)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성령집회(금)오후 8:00

하늘빛 선교교회
예배에 생명열매를 맺고 말씀으로 훈련하며 민족과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
1011 Grandview Ave. #D Glendale, CA 91201
T. (818) 247-467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나라의 근간 지켜져” 뉴욕 목회자들 감사

밤새 대선결과 지켜본 이들 많아... 대체로 환영 분위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역대 최다표를 얻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국교계 지도자들이 박근혜 당선자에게 안보와 화합, 통일에 힘쓰는 대통령이 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인목회자들도 이번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대다수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제18대 대선과 관련, 뉴욕 목회자들 중에는 밤새 개표상황을 지켜본 이들이 많았다. 뉴욕시각으로는 19일 오전 9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밤새 결과를 지켜본 뉴욕 목회자들의 19일 하루 동안의 화두는 한국 대선이었으며 이번 결과에 대부분 환영을 표하고 아름답게 대선이 마무리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뉴욕교협 김중훈 회장은 “(박 당선자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을 따라 겸손히 국정을 운영하면 좋겠다”며 “민생 돌보기와 굳건한 안보, 세대 공감을 내걸었는데 특별히 안보가 중요하다. 이제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약속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앞으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교협 직전회장 양승호 목사도 밤새 대선 결과를 지켜봤던 목회자 중 한 사람이

다. 양 목사는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 “그동안 나라가 좌경화 되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고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을 염려했다”며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기도했다. 박근혜 당선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치를 한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목사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결과에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당선자를 축하하는 모습이 훌륭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이 반쪽과 정쟁, 정파 싸움들을 중단하고 말 그대로 대통령직의 상생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 목사는 “우리 이민자들도 합심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좋은 일들이 넘칠 것”이라고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이승만기념사업회뉴욕지회장을 맡고 있는 손영구 목사(산정현교회)는 “솔로몬 왕이 보좌관을 세울 때 나이든 원로들을 택하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멸망한 역사적 기록을 보게 되는데 이번 대선에 50대 이상이 특히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원로들이 나선 것과 같은 모양”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업화를 이루어 다른 나라 지도자로부터도 존경받고 있다. 그 딸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외교나 국가안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안정을 기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손영구 목사는 “박근혜 당선자는 이념을 초월한 국민 대통령과 서민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잘사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들도 힘을 모아 선진 대한민국으로의 도약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청빙 확정

미 동부 최대 한인교회인 와싱턴중앙장로교회가 제 3대 담임목사에 류응렬 목사를 청빙하기로 확정했다.

담임목사 청빙확정 건에 관한 임시공동의회는 12월 23일(주일) 각 예배(1-4부) 후에 진행됐으며, 총 투표자 중 94.2%가 찬성해 최종 확정됐다. 와싱턴중앙장로교회의 경우 18세 이상 모든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공동의회 참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확정된다. 이 교회 청빙위원회(위원장 박동수 장로)는 지난 12월 12일(수) 만장일치로 류응렬 목사를 담임목사로 추천했으며, 담임목사 청빙건은 12월 16일(일) 임시제직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류 목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대학원(영문학 학사/석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구약/신약 신학 석사),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h.D., 설교학) 등에서 수학했으며, 동일로교회 지휘

자, 전도사, 강도사, 중국선교사, 뉴햄프셔장로교회 EM목사, 인디애나 은혜장로교회 EM목사, 분당 중앙교회 협동/교육 목사(2003-2011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부교수(2004년부터 재직), HMC(Heavenly Mission China) 대표, 미래목회포럼 자문위원, 개혁신학회 편집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 목사는 현재 안식년을 맞아 미국 뉴저지주 헬러타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년 3월이나 4월 경에 부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류응렬 목사

주요한 기자



김선배 이사장(우)이 김창환 총장(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도약의 한해 된 GCU, 더 큰 하나님의 꿈을 향해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총장 김창환, 이하 GCU) 성탄축하 및 TRACS 정회원, ATS 준회원 인증 감사의 밤이 20일(목) 오후 6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교직원 및 학생, 동문들이 모여 학교의 발전을 축하하고 수고한 이들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시간이 됐다.

GCU는 올해 6월 신학대학원이 ATS 준회원으로 가입된 데 이어 11월에는 TRACS 인가 3년 만에 정회원으로 인증되는 큰 성과를 거뒀다. GCU 또 올해 한동대학교(총장 김영길), 호남대학교(총장 차준순), 영남신학대학교(총장 권운근), 대전신학대학교(총장 황순환) 등과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이에 소회를 밝힌 김창환 총장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왔다. 지난 20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을 느낀다. 아무 것

도 모르고 시작한 인가 과정이었는데 이를 통해 학교에 무엇이 부족한지 발견하고 보완하는 귀한 경험이 됐다.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장은 학교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장학금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베스의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정호 목사(아틀란타한인교회 담임)는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그 기도는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품는 기도였다. GCU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존귀한 자로 쓰임 받을 기회가 왔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해 가라”고 당부했다. 앤더슨 김 기자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12월 21일 멸망? 종말설 왜 끊이지 않나

삶의 불안에서 온 현실 도피적 경향



'지구 종말'을 모티브로 한 영화 <2012>의 한 장면

마야 달력의 마지막 날이라는 이유로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날의 날씨가 최저·최고온도 999도, 바람세기 3000km/h라는 등 다소 황당한 내용의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마야 문명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2년 12월 21일은 5125년을 주기로 돌아가는 마야 달력의 마지막 날일 뿐 지구 종말의 날은 아니다.

올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예언'들은 수 년 전부터 있었다. 이런 바람을 타고 지난 2009년에는 지구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 '2012'가 개봉되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미국의 한 유명 라디오 회사의 대표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 이를 철화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왜 이처럼 '종말'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일종의 '현실 도피적 경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금의 삶이 힘들고 불안할수록 모든 것이 하루 빨리 끝나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런 심리가 극단적으로 흐른 것이 소위 '개인의 종말'이라 할 수 있는 자살이라는

게, 또한 일부의 분석이다.

서울신학대학교 권혁승 교수도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종말관을 포함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것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저자인 요한은 유배된 상황이었으며 많은 교회들이 박해 속에 있었다"며 "가장 어려웠던 시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에 대한 위로라는 해석이 강하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견디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교수는 이 같은 종말에 대한 관심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는 시작과 끝, 곧 종말을 말하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종말, 혹은 그 이후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신앙에도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는데, 종말에 대한 갈망이 구심력이라면 안으로 끌어들이는 원심력은 지금 주어진 내 삶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 그것을 통해 지금의 나를 조명하고 오늘 주어진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진영 기자

"총기 사건, 삶의 우선순위 알려줘"

조엘 오스틴(Joel Osteen·레이크우드교회) 목사가 최근 샌디 후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경종이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스틴 목사는 17일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투나잇(Entertainment Tonight)에 출연해 "이번 비극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 순위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지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했다.

오스틴 목사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 이는 우리의 삶(심지어 국가)이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를 깨닫게 해 준다. 또한 매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얼마나 하지 않는지,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을 얼마나 들이지 않는지 알려준다"고 말했다. 오스틴 목사는 "우리는 국가로서도 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여기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발언이 전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T.D. 제이크 목사(토기장이의집)는 MSNBC의 한 방송에 출연해 "지금 미국인들이 하나될 수 있는 중요한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제이크 목사는 "우리는 모두 성벽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라는 성경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크우드교회의 담임목사 조엘 오스틴

16일 뉴타운에서 열린 희생자를 위한 철야 기도회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고린도후서 4장 16-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을 인용해 연설했다. 오바마는 대통령은 "지금 순간의 문제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보이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해진 기자

케임브리지, 2000년 된 성경사본 온라인 공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12월 초 수천장의 성경 필사본을 온라인에 공개해 화제가 됐다. 케임브리지 디지털 라이브러리는 '내쉬 파피루스' 필사본을 스캔해서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예루살렘포스트(the Jerusalem Post)가 22일 보도했다.

내쉬 파피루스는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 중 2번째 오래된 것으로, 십계명을 담고 있는 2000년 된 문서 일부분과 19세기 후반 이집트에서 발견된 쉘라 기도의 일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해 문서이다.

지난 주에는 카이로 계자 문서도 업데이트됐다. 이 문서는 이집트 카이로 콥트 지구의 벤 에스라(Ben Ezra) 유대교회당에 있는 고문서 보관소에 있던 것이다. 이 보관소에는 19세기 말에 발견된 약 25만 점의 고

문서가 보관돼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카이로 지역 유대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앤 자비스(Anne Jarvis) 사서는 성경을 통해 "문서의 연도와 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들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전시되어도 한두 페이지 정도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폴론스키 재단의 도움으로 인터넷에서 누구나 관심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사본의 어떤 페이지라도 다 볼 수 있으며, 섬세한 관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공개된 사본에는 5세기 신약 성경인 '코덱스 베자에'(Codex Bezae), 10세기 주머니 성경책(높이 6.2인치, 넓이 4.3인치) '북오브디어'(Book of Deer)도 포함돼 있다.

강해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 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출어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EM/Youth예배 오후 12:00 오전 6:00(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월 마지막주)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1부 예배 오전 9시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2부 예배 오전 11시 (토) 오전 6시
영어예배(1부) 오전 9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영어예배(2부) 오전 11시 금요일아

배명환 담임목사

로렘장로교회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956-7640 F. 714-956-7909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AWANA 오후 12: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 30분 성공광복(화) 오후 8시 30분
중, 고등부 오후 3시 금요침야예배 오후 8시
청년부 오후 3시 한국학교(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이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말씀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00(토)

김한요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901
T. (562) 860-5451 / iloveccc.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월일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침야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한중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7: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최상준 담임목사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오후 7:30

지 사론 담임목사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균형잡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아있는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인도되는 선교교회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1: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받는 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 치유예배 목요일 7:30
주일목사예배 오후 2: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금요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일 EM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 90604
Tel: 562-903-2600, Cell: 714-600-770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밥 tv 초고속인터넷, 냉방, 세탁,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연말연시 특별세일

항상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 때 보다 더 풍성하게 한 뿌리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연산도 더 많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고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말을 맞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말연시 특별 세일

	산삼 수령	뿌리당 무게	3차 파괴 가격	가격/454g
대	1호~2호 Mixed (60년~120년근)	1호:23~35그램	\$1,700	\$1,200/LB
		2호:15~22그램	\$1,200	
중	3호~4호 Mixed (20년~60년근)	3호:9~14그램	\$1,100	\$850/LB
		4호:5~8그램	\$ 900	
소	5호(10년~30년근)	5호:1~5그램	\$ 600	\$400/LB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2년 11월 5일

가 격	무 게	뿌리 개수	산삼 수령	중전무게
\$600	270그램	약30 뿌리	평균 30~50년근	200그램
\$200	110그램	약 20~30 뿌리	평균 20~30년근	90그램

\$200 산삼은 200그램부터 130그램, 110그램, 90그램 등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생삼일지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식품 검역소, 면세통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선물 증정



\$ 30

산삼 200불 구입시마다 /2병
구연산 \$80(소매가 기준)
 산삼 600불 구입시마다 /8병
구연산 \$280(소매가 기준)



\$ 50

NY, PA, VA, NC, WI 최상급 산삼 자생지에서만 채취해 옵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싱싱하게 보존해 판매합니다. 씹거나 달이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시도록 복용법을 드립니다. 홍삼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지만 **진짜 야생 산삼**입니다.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산삼도매 한인 최대 유통회사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30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업체

HQ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70그램~~ 110그램 / 평균 10-30년근 30~40뿌리



\$200
 소매가
~~\$1,000~~

~~200그램~~ 270그램 / 평균 40-50년근 30~40뿌리



\$600
 소매가
~~\$3,000~~

※ 모든 제품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세일기간 :
 12월 31일까지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위산과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30불/ea + tax
 Kost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280불)~~ **100불**
 or 오리지널8병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270불)~~ **100불**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280불)~~ **100불** +tax



\$100 구매시마다 산삼 1뿌리 공짜선물!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100%
 환불 보장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인생(그림으로 읽는 전도서)

이성표 | 홍성사 | 144쪽

일러스트 작가로서 많은 성경 버전을 참조하고 감수를 거쳐, 전도서 원문을 다듬고 또 다듬어 일상언어에 가깝게 다시 옮겼다. 쉽게 읽히며 명료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텍스트와, 응결된 이미지로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 듯한 그림이 어우러진 이 책은 성경 읽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사랑의 홍수 속에 익사하는 자들

유재호 | 콤팩 | 1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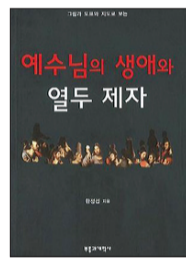
저자가 러시아 선교 중에 하나님의 강한 이끌림을 받고 써내려간 글들을 묶은 책으로, 문학적 제목과 살아있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친 세상', '복음과 자유', '시청각의 하나님', '동사의 발자국들' 등 총 6장으로 이루어진 글 전체로도, 한 개의 글로도 읽는 이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의 생애와 열두 제자

한정섭 | 부흥과개혁사 | 200쪽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연대별, 지역별로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복음서의 내용 이해를 돕는 각종 그림과 지도, 도표를 100여 개 담았으며, 내용 서술이 짧고 간결해 복잡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 아이, 신앙이면 충분하다

이철승 | CLC | 320쪽

저자는 부모가 가장 먼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신앙교육이라고 말한다. 신앙교육은 하나의 방법이 아닌 원리이며, 그것은 기도와 고민에서 나오는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다. 성경적 원리와 실재가 서로 어우러져 부모와 자녀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교육인 것이다.



REVIEW

더 이상 똑같은 피아노 반주 패턴은 없다! 35 리듬을 한 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배우는 리듬반주 35

이사우의 예배 반주 시리즈는 교회 예배 현장에서 반주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리듬·화성 편곡적인 내용들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베이직, 발라드, 펑크, 록, 서플, 재즈 등 35가지의 리듬 패턴을 익힌다면 단순한 반주가 아닌, 세련되고 감각있는 반주를 할 수 있다. 예배 현장에서 직접 연주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이사우 씨는 35가지 리듬 패턴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악보로 담고 책으로 냈다.

부록 CD에 담긴 연주 음원 및 MR 음원을 이용하여 직접 들어보거나 MR에 맞춰 연습해 볼 수 있다. 책 앞부분에는 저자의 오랜 예배 반주 경험

에서 나온 반주자들을 위한 조언을 함께 실었다.

이사우 씨는 "설교를 들으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설교자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교 중간 스피치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라며 "설교 도중 말하는 속도가 빨라지다가 강조하는 부분이 되면 천천히 말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는가 하면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마치 설교자처럼 반주자도 다양한 패턴을 구현해, 찬양이 좀더 듣는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성이 녹아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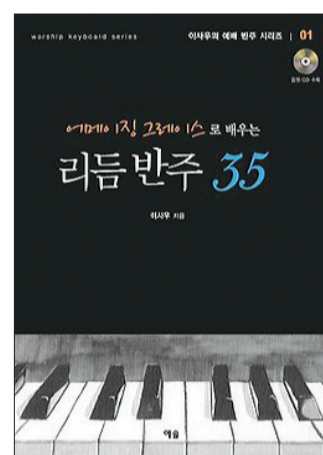
이 씨는 누구에게나 익숙하면서 다

양한 편곡이 가능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이용해 반주에 필요한 여러 요소 중 다양한 장르의 리듬 패턴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

저자는 초보 건반 예배자들에게 조언하는 말 중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연주 템포가 일정하지 체크하자. 코드를 읽고 연주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거나, 정박자로 연주하지 못한다면 좀 더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트로놈을 켜 놓고 연습하면서 자신의 연주를 직접 녹음해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볼륨 조절도 빠뜨릴 수 없는 사항이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라도 거북할 정



이사우 | 예솔출판 | 87쪽

도로 크다면 소음이 되기 때문이다. "연주하는 음역대가 다른 악기와

부딪치지 않는지도 체크하라. 주로 충돌하는 악기는 저음 부분을 연주할 때 베이스 기타와 생기는 마찰이다.", "합주할 때 코드가 바뀌는 시점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체크하라" 등 가장 기본적인 놓치기 쉬운 사항들도 곁들였다.

이밖에 예배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로 겸손한 마음가짐, 악보에 미처 표기하지 못한 것, 적절한 모니터링, 회중을 배려하는 연주, 디테일에 대하여 등을 덧붙였다.

일정한 패턴의 연주 방식을 탈피하고, 찬송가나 기존 곡을 새롭게 편곡·연주하거나 다양한 장르로 연주해 보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다. 오유진 기자



여호수아 미국대륙횡단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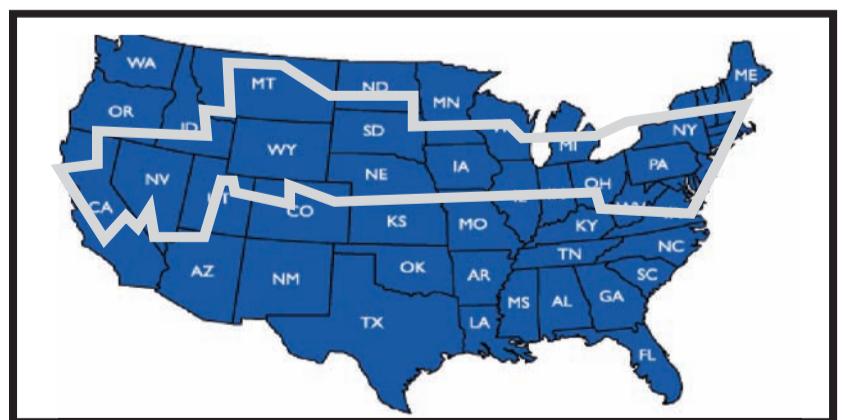
본 선교회는 청소년 캠프사역으로 대한민국 2세들에게 여름방학(30일) 겨울방학(10일) 동안 광활한 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며 신비로운 자연과 유명 관광지, 유적지, 선교지를 답사하고 동부 IVY 리그 대학들을 탐방하여 큰 꿈과 용기와 비전을 갖게하며 영적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사랑, 섬김, 협력, 리더십을 키우며 예수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 비 영리 선교 단체입니다.

* 본 선교회에 뜻을 같이 하실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1.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 사역에 비전을 갖고 계신분
2. 건강하고 활동적, 적극적이며 리더십이 있으신분
3. 합법적 미거주자 한국어 및 영어 가능하신분

* 본 선교회 프로그램을 활용(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5국립공원, 30개주, 40명소, 1만 마일, 5개 IVY리그 대학



LA->요세미티NP->타호호수->솔렉시티(소금호수)->엘로스톤NP->러쉬모어NM(대통령 콘바위얼굴) 시카고(시어즈타워,오대호)->클리블랜드->나이아가라 폭포->보스턴(하버드대학교,MIT 공과대학교)->뉴헤이븐(예일대학교)->뉴욕(맨하탄,자유여신상,엠파이어빌딩,NYU대학교,콜롬비아대학교)->워싱턴 D.C (백악관,국회의사당)->ST. Louis->덴버(로키마운티NP,공군사관학교)->콜로라도 스프링스(파이크스 피크, 로얄고지 다리)->블랙캐년 NP->아쉬NP->케넬랜드 NP->나바호 인디언 선교지->파월호수NP(8시간 유람선)->그랜드 캐년 NP->BRYCE캐년 NP->Zion 캐년 NP->라스베가스->LA

대표 : 최영봉 목사

1134 S Western Ave #A-5 LA CA 90006
Tel. 213-271-5034

새 달력 새 마음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투표권도 없고 관심을 가져조차 아무 쓸모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지난번 선거 때는 장로이신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나온 까닭에 마음으로는 열심히 후원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의 대선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철두철미한 신앙인이 보이지 않는 까닭에 목사의 마음으로는 조금 섭섭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선거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막상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누가 될까 하는 궁금증이 조금씩 커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결과에 귀를 기울였는데 마침내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박근혜 씨라고 하면 한국의 현대사를 살아온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유명한 인물이다. 그녀의 아버지 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지도자이다. 그리고 박근혜 씨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암살로 인해 잃어 버린 비극의 주인공이다.

그래서인지 어느 신문에서는 지금까지 그녀의 삶이 한국의 현대사와 얽혀 있다는 의미에서 “Her story is history”라고 쓰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박근혜 씨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만은 느껴지지 않았다. 유명한 부모님들 둔 것은 복이라 할 수 있지만 젊은 나이에 두 분의 부모님을 그렇게 잃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이 그 비극을 깨끗하게 헤쳐 오는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으니 장한 일이고 축하할 일이다. 막상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니 그녀에 대한 좀 더 다른 면들이 소개되고 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 박근혜 씨에 대한 소개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중 첫째로 흥미있는 것은 그가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라는 점이었다. 책을 몇 권 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저 유명세 때문 아닌가 했는데 정식 문인협회 회원이라고 하니 조금은 생각이 달라진다.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은 박근혜 씨가 한 때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이다. 목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지만 나도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고 박근혜 씨의 종교란에는 늘 ‘무(無)’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하니 그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무슨 연유로 신학을 했고 그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러나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왠지 조금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박근혜 씨가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을 맡게 되었으니 개인적으로는 꿈을 이룬 것이고 큰 영광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웬 일인지 모르겠다. 여자라는 선입관 때문일까? 아니면 과거의 아픈 상처 때문일까?

어찌 됐든 이 중요한 시기에 조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박근혜 새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하겠다. 공식 종교가 무엇이든 새 대통령 당선자 또한 신학을 하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렸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분인과 온 국민의 바람대로 나라가 더 발전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다.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가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희망의 새 해가 밝아오고 있다. 새 달력의 첫 장에는 한결같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글과 그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글을 쓰는 저도 여러분들의 행운을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힘을 강조하던 옛 로마 사람들은 연초에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신을 섬겼다. 한쪽 얼굴이 뒤를 보고 있는 것처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라는 뜻이고 앞을 보는 얼굴은 미래를 생각하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창조주를 믿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좋아했다. ‘주 너희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선달 그믐까지 늘 보살피 주신다는 훈시였다.

반면에 효를 생명처럼 여기는 한 국가사람들은 음력을 기준으로 설날이 되면 남녀노소 구분없이 축제를 벌이며 세배드리고 만수무강을 빌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도 바울의 교훈 중에는 연초마다 되새기는 글들이 있다.

즉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육체는 성장했다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독특한 말이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깊이 생각하면 수긍이 간다.

인간은 동물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이 있다. 그것은 소유적인 요소보다는 창조적이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것을 영적이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면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라는 것이다.

‘날마다’라는 말은 매일 새롭게

살라는 교훈이다. 바울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는 교훈도 준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어 산다. 즉 지난 과거에 가슴 아픈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많은 재산을 날렸거나 가족 간의 갈등,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일 등 많고 많다.

어떤 이는 화려했던 과거에 집착한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엇을 했고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고 친척 중에 누가 어떤 자리에 있다는 등 만날 때마다 자기를 과시해 듣기에 거북하게 만드는 사람 말이다. 이제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기 위해 숨을 고르는 연초가 되어야겠다.

목은 달력과 더불어 1년 동안의 가슴 아픈 상처와 나 자신의 자랑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새 달력과 같이 새로운 꿈을 걸고 매일 매일 기쁘게 새 그림을 그리며 한 해가 되기를 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세금보고



김인호 CPA

한인사회에서도 교회나 선교단체, 향우회, 자선단체의 설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영리단체 설립을 위한 첫번째 절차는 각 단체의 설립 목적에 맞는 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하여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주식회사 설립을 하는 것이다. 비영리 주식회사를 설

립한 후 Federal Tax ID를 신청한다.

그리고 연방 국세청(IRS)과 주 세무국(FTB)에 면세 등록(Tax-exempt status)을 꼭 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쳐야만 기부금에 대한 면세가 허용되고 기부한 사람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의 경우 교회와 종교단체 및 병원, 학교, 양로원은 Form 1023을 사용하고 그 외의 모든 비영리단체(노동조합, 재향군인회, 상조회, 운동클럽 등)는 Form 1024를 사용하여 면세를 신청하게 한다.

국세청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단체의 규정(By-laws) 외에도 설립 목적, 배경, 자금 출처, 임원들의 경력, 재무제표, 리스 계약서 등을 요구한다. 국세청 서류 심사비용은 단체

의 연수입이 \$10,000 이하인 경우 \$400이며 연수입이 \$10,000 이상인 경우는 \$850이다.

이외에 주식회사 설립 비용과 FTB 수수료, 변호사나 회계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면세 등록서를 받은 후, 비영리단체는 국세청(IRS Form 990)과 주 세무국(FTB Form 199)에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단지 교회와 사할 등 일부 종교 기관은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

Form 990을 3년 연속으로 보고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그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 수입이 \$50,000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는 복잡한 Form 990 대신 Form 990-N(e-Postcard)를 사용하여 비교적 쉽게 보고를 마칠 수 있다.

문의) 562-467-1114

김인호 CPA

562-467-1114
cerri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통신생 대모집
online

2012년 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Th.D · Ph.D학위 7명, · M.Div학위 7명 \$10000,00 장학금지급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 1.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 2.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 3.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 4.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 5.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6. 통신강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② Indian University
 - ③ Lee University
 - ④ Liberty University
 - ⑤ Oral Roberts University
 - ⑥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신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통신생 전공 최상의 장학금지급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Div)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Th.M)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48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상담학 Ph. D.	48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협력학교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수시접수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213) 503-5330

수시접수

유동근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제4회) 요한복음 1장

유동근
한국은누리교회목사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은 예수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주목하며 체험한 후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씀'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2격에 대한 호칭이다.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되신 주님의 호칭이기 때문이다. '말씀'이란 곧 하나님인 영원한 아들의 위격을 말하는 또 하나의 성호(聖號)인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해야 맞는 것이다.

"되어"(became)란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낳은바 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성자는 성부로부터 말미암았되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않았고 오직 낳은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육신"이라는 말은 분명 '사람'과는 구분되는 단어이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주 예수께서 성육신 되셨을 때 모든 면으로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혈육을 입으셨다는 말이다. 이는 어떠한 비밀인지! 그분은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신 것이다.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몸(body)과 이성적인 영혼(soul)으로 이루어진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이다. 그분이 만일 참된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또한 이 육신이라는 말은 피곤하고 연약하기 쉬운 인간이 타락한 후의 나약한 그 육체를 그대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뜻한다. 그분은 타락하기 전의 아담과 같이 연약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을 입은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순간도 하나님이지기를 그치신 적이 없으시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감추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분은 자신으로부터 나타나는 영광의 모습을 포기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그분의 신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 그분이 이 땅 위에서 사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사람'으로서 하신 일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히 인간의 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기도 하신 분의 피인 것이다.

따라서 그분은 아타나시우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의 인간이셨다. 따라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셨다 (complete God, perfect Man). 현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인간이시다. 그분의 신성뿐 아니라 인성 또한 하늘에 계시다. 우리의 본성을 지니신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구자로서 먼저 하늘로 가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육신이 되셨을 때 그분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셨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죄를 범하기 쉬운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만 오셨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셨으며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죄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였다.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것이다 (고후 5:21).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한다'는 말은 원문에서 '거처를 정하신다', '장막 가운데 거하신다'의 뜻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장막으로 취하셔서 33년 동안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뜻이다. 그분은 환영이나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33년 동안 그분의 육신 안에 거처를 두시고 팔레스틴 땅에 거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은 그분의 육신적인 모습 속에서 때때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발하고 계심을 보았다고 말한다. 제자들은 적어도 "변환산 상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등"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복음은 보는 문제이다. 그러니 지식과 머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한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광채로서 정신적인 두뇌 활동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문제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 한 번 보면 그것으로 된다. 그 영광의 얼굴은 우리 마음 속에 은하 비취진다. 비취진 것으로 새 창조는 시작된다(고후4:6). 우리 속에 한 번 비추어지면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의 심비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고후3:3). 그 본 것은 마음 속에서 영원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든든함과 평안과 만족은 영원이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베드로처럼 구원받은 후에 잠시 약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내 회복이 된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였다. 그때 주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여기서 알게 한 것은 바로 본 것, 계시(revelation)이다.

계시란 정신적인 작용이나 이성적 이해가 아니라 영 안에서 그분의 얼굴빛을 보는 것이다. 베드로가 잠시 육신으로 약해져서 그가 본 것을 부인한 적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분의 빛을 다시 보고 이내 회복되었고 밖에서 나가서 통곡했던 것이다. 베드로로 하여금 일생 주를 따르게 한 것은 나사렛 사람 예수 구주를 본 것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단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출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그러한 위격이었다. 시편 22편 7절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한다. 요한이 말하는 아들(예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이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로써 출생하셨고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신격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빛났다. 요한은 어떻게 그분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일서에서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분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했다(요일1:2). 제자들은 주 예수에게서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다. 이것은 진정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 그분의 행함과 말에서 놀라운 은혜로움을 느꼈다는 말이다. 또한 그분의 말과 행함에서 거적이 조금도 없이 진리가 충만했던 것이다. 그분은 이 땅에 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대한 온유와 사랑과 호의가 충만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식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은혜의 복음으로 가동하여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며 공급하는 식으로 사역하셨다.

16절, 우리가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바울 사도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

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말했다(골 1:19). 그분 안에는 무한한 충만함이 있다는 말이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으며 그분의 지혜와 사랑,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 충만하다. 그분의 선결과 의와 구속 등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 가득하다. 이 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가 의미하는 바이다. "받으니"란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분의 충만한데서이다.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사람이다. 할렐루야!

성도들이나 모든 만민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되신 그리스도인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분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주셨다. 따라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자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얻는다." 은혜 위에 은혜(grace upon grace)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무한 무량(無限無量)한 은혜의 공급을 가리킨다. 그분의 은혜는 다함이 없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지속적이고 신신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보통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그릇이다. 그러니 그분으로부터 받은 자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시23편,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요"라고 하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있는 충만을 그분 홀로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여케 하신 것이다(엡3:19).

유동근 목사는

유 목사는 대전고과 충남대학교·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미 퍼시픽 신학대학원(Th.M., D.D.), 워싱턴 신학대학원(Th.D.) 등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온누리선교회 담임목사, 미 퍼시픽 신학대학원 교수, 국제선교신학연구원(IMC) 학장, 예장 국제선교연합총회 총회장, 글로벌부흥협의회 총재 등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마태·마가·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등 신약 전권을 강해해 책으로 펴냈고 창세기, 모세5경, 여호수아·룻기, 사무엘상하, 전도서·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등도 출판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부인병 및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 개선시키는 청 한의원

대단히 놀랍고도 배바른 효능의 특수침술, 특수진맥

이번주 강의: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심각하고도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피순환이 잘 돌아서 무섭게 망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나이가 40살 정도인데 당뇨가 생긴지 2년정도인데도 눈이 안보여서 본원에서 치료 3개월 후 눈이 어느정도 보이게 됐고, 당뇨 수치가 어느정도 잡혀서 안도의 숨을 쉬지만 당뇨 합병증은 생각보다 무척 힘들고 그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습니다. 본원에서는 자연의 요법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에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당뇨, 고혈압은 평생토록 관리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는 안되지만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그리고 줄여서 합병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 한의원에서는 특수침맥과 특수침술을 통해서 오래된 통증을 인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수 분 정도에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약해진 장기의 균형을 도와주어 합병증 및 통증에서 벗어나게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도와드립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초기에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만 의존하다 보니 안 보이거나 신장투석, 다리절단과, 심장병, 뇌경색 중풍 치매등으로 고생하다 무척 힘들게 되는데 어느 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빠른 증상개선으로는 좋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중요장기인 뇌, 눈, 심장, 신장 및 손, 발등 중요한 부분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본원에서는 자연의 요법으로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서 수치가 어느정도 정상에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당뇨, 고혈압은 평생토록 관리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는 안되지만 약에서 어느정도 벗어나야 그리고 줄여서 합병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 한의원에서는 특수침맥과 특수침술을 통해서 오래된 통증을 인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수 분 정도에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약해진 장기의 균형을 도와주어 합병증 및 통증에서 벗어나게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도와드립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청 한의원의 상상하기도 현실의 세계에서 믿기 어려운 빠른 효과의 특수침술은 과연 무엇인가...

예) 70대 바라보는 LA 인근에 사시는 김 선생은 허리통증으로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본원에 와서 침을 맞은지 불과 2-3분도 채 안되어 그 즉시 그 괴로운 통증이 사라진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신기하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상황을 얘기하니까 아무도 믿기 어렵다고 말하니까 3주가 지난 이후에도 통증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예) 60대 후반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배 부위의 통증으로 무수한 병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내원한 바 침술 후 3분도 안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졌으니 남편도 지켜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면서 믿기가 힘들고 상상으로도 이해가 안간다고 너무나 감사해 하셨습니다.

예) 50대 남성으로 오랜지카운티에 사는 강 선생은 오십견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한6개월 정도 고생으로 여러 병별치료를 다 했으나 계속 아파서 본원에 와서 치료후 5분도 안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그 즉시 움직이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믿기지 않아 했고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의 임상사례는 개개인의 증상, 병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증이 사라졌다해도 다시 올 수 있으며 통증이 사라진 것이 완치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계속적 치료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은 완치가 없으며 평생동안 관리조절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예) 70대 할머니 엉덩이부터 땀기고 발끝까지 아파서 좌골신경통 및 알 수 없는 통증으로 2년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다 정말 남들이 2-3분 정도 후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방문 그런데 5분도 안되어 그 오래된 통증이 사라지니 이것은 상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감탄하시며 뒤돌아 가면서 감사해하는 모습이었다.

Coupon 60% off 12/31/12 까지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2병 사면 1병 FREE
당뇨병의 희소식!!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을 참조
24시간 주문전화 714.636.1412

청 한의원 714) 636-1412(24hrs) 714) 349-7995/ (213) 385-5833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 92841/ 3003 W.Olympic Bl. #201, LA



HEALTH & LIFE

귀파기, 카페인, 이어폰... 귀 건강 해친다



매일 아침 귀를 파는 아빠와 하루 종일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엄마, 항상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아들과 딸. 일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지만 귀 건강에는 좋지 않아 외이도염이나 이명, 난청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이기도 하다. 우리 가족 귀 건강을 해치는 생활습관을 점검해 보자.

습관성 귀지 제거 염증과 청력손상 위험

세수나 샤워 후 귀에 들어간 물을 제거하기 위해 면봉으로 귀를 닦거나 청결을 위한다며 습관적으로 귀지를 파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 건강에는 좋지 않은 습관이다. 귀지는 땀샘이 변화된 이구선(귀지샘)에서 나온 끈끈한 피지 분비물과 땀샘에서 나온 묽은 분비물이 각질, 먼지 등과 섞여 만들어진다. 이런 귀지는 약산성을 띠고 있어 세균 증식을 막아줄 뿐 아니라 인체의 자정 작용에 의해 자연스럽게 밀려 나오기 때문에 굳이 파낼 필요가 없다.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에 귀속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약간의 기름기를 머금고 있는 귀지 덕분이다.

소리귀클리닉 신유리 원장은 “귀를 파는 과정에서 외이도에 상처가 생기면 세균증식으로 귀속 건강이 나빠질 뿐 아니라 자칫 고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킬 경우 청력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귀지는 무리해서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귀에 이물질이나 이물질(귀 고름)이 있을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카페인 과다섭취 신경 자극해 이명 악화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려다거나 흥분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만큼 카페인 우리 몸의 신경을 자극해 쉽게 흥분하게 만든다. 신경이 자극을 받아 흥분하면 불안감뿐 아니라 이명과 현기증을 느끼게 된다. 이명은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사람의 귀 혹은 머리 속에서 느끼게 되는 소리를 의미한다. 이명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카페인 섭취까지 과도하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심할 경우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 카페인에 커피 외에도 녹차, 홍차 등의 차와 콜라, 에너지 음료, 초콜릿 등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음료나 음식을 먹을 때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볼륨 높인 이어폰 소음성 난청 불러와

최근 MP3나 휴대전화 등 소음에 노출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젊은 연령층에서 소음성 난청의 발병이 늘고 있다. 특히 이어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발병되는 경우가 많은데, 잦은 사용 빈도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주변 소음보다 큰 소리 전달을 위해 볼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더 큰 문제. 소음성 난청은 한번 진행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청력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가급적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볼륨을 최대한 작게 들어야 한다. 신유리 원장은 “7-9DB의 소리를 더 크게 전달하는 귀속형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나 귀걸이형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강칼럼]

하나님이 정말로 저를 버렸어요!

기독교인과 상담치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상처와 만나게 됩니다. 이 상처는 심리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서 우울증 환자였던 분들은 더 심한 우울증을 앓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분명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렸죠.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믿으면 뭐해요? 어차피 버림받고 지옥으로 떨어질텐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안 보여 주실까요? 저는 버림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요? 좋은 부모도 많은데...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 같은 건 하찮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단기선교도 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 결혼도 못 하고 변한 직장도 없고요. 항상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이 왜 제게는 좋은 상황을 안 주시는 걸까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비참한 심정으로, 때론 한숨을 쉬면서,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거나 우리의 행복을 훼방하고 계시는 걸까요? 인간의 불행을 즐기기도 하시는 걸까요?

그간 책을 통해 수차례 ‘나의 슬픈 스토리’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나보다 더, 버림받은 심각한 상처 때문에 절규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그 원망 때문에 공포에 떠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을지라도 나는 저주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라는 생각에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계속되는 상처와 고통스럽게 이어지는 자신의 삶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던 아담과 하와와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그 완벽한 아름다움과 총만하고 부유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들 부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잘못과 죄는 잊어버리고 상처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가 수천 년에 걸쳐 인간의 DNA 속에 스며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길 때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감정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상처받은 마음이 클 때, 기독교인은 그 모든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투사하게 됩니다. 부모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부모에게 상처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총명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충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처에서 속히 치유되지 않으면 왜곡된 사고가 신앙적 왜곡을 가져오고 신앙적 강박과 불안이 폭풍같이 몰려오게 됩니다. 내가 치유의 마지막에서 만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토록 저주받았다는 불안감에 떨던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사랑을 보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은 치유가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고난 중에도, 시련이 닥쳐와도, 이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 눈을 뜰 때면 기쁨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상처 입은 영혼은 이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오히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당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깨달아진다면 당신도 치유의 끝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냥 느껴지고,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상황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치유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한, 상처에서 생겨난 무수한 분노의 감정을 끊임없이 투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당신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당시 상처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너무나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처에 찢어있는 당신도 내 말에 귀 기울였으면 합니다. 치유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유받으라고. 치유의 끝에 서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넘치는 사랑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목사

생활한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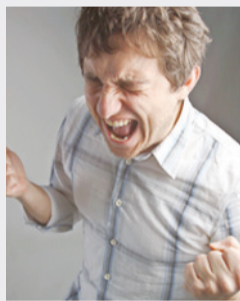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화를 잠재우는 방법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후회없는 한 해를 보내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화가 있을 때, 정상 심박동 수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심박동 수가 빨라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박동 수를 체크하는 간편한 방법은 내 손목에 손을 대고 맥박을 재 보는 것입니다. 평균 평소 1분당 72회 내외로 심장 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막 나는데 손목을 잡고 박동 수를 체크하기에는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호흡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흡을 깊이 하면 심박동 수가 조절이 됩니다. 평소에 복식호흡을 연습하면 이런 상태를 조절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장수의 비밀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을 분석한 팀이 있었습니다. 자연환경, 식사습관, 웃는 시간, 식사의 종류, 직업, 남녀, 결혼유무 등등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딱 한 가지만 유의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바로, 미네랄 섭취의 양이었답니다. 특히 고산지대에 미네랄이 많은데, 저 알프스 산맥 어딘가에 사는 마을이 가장 건강하면서도 오래 사는 곳이라고 하네요. 한약은 식물을 물과 불을 통해, 혹은 자연 그대로 빻아서 만든 것입니다. 성분 분석으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 기운을 섭취해서 여러가지를 치료하는데, 미네랄의 개념이 전통적인 보약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글=허랑한의원 박용환 원장

WIN HYUNDAI at El Monte

<p>SANTA FE SE AWD 2012 VIN# NC0137195</p> <p>Lease \$259 per month + tax</p> <p><small>36 month closed end lease. 12k miles per year and 20cents a mile in excess on approved above average credit. Excludes Tax, title and registration fees, \$0 security deposit, \$2,995 Cash out Pocket + \$1,000 Competitive + \$2,000 Other Rebates = \$5,995 Total Drive off</small></p>	<p>ELANTRA GLS 2013 Lease 314 한달</p> <p>Lease \$79 per month + tax</p> <p><small>36 month closed end lease. 12k miles per year and 20cents a mile in excess on approved above average credit. Excludes Tax, title and registration fees, \$0 security deposit, \$2,995 Cash out Pocket = \$2,995 Total Drive off</small></p>	<p>SONATA GLS 2013 Lease 314 한달</p> <p>Lease \$89 per month + tax</p> <p><small>36 month closed end lease. 12k miles per year and 20cents a mile in excess on approved above average credit. Excludes Tax, title and registration fees, \$0 security deposit, \$2,995 Cash out Pocket + \$500 Competitive + \$1,500 Other Rebates = \$4,995 Total Drive off</small></p>	<p>VERACRUZ Limited 2012 Lease 314 한달</p> <p>Lease \$259 per month + tax</p> <p><small>36 month closed end lease. 12k miles per year and 20cents a mile in excess on approved above average credit. Excludes Tax, title and registration fees, \$0 security deposit, \$3,995 Cash out Pocket + \$1,500 Competitive + \$1,500 Other Rebates = \$6,995 Total Drive off</small></p>
---	--	---	--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생원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최고로 낮춰주세요.

Tel.888.409.3002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HYUNDAI** 12월 31일까지 유학생

엘로스톤 국립공원 Yellow Stone National Park

세계자연유산의 교과서, 미국 속 알프스

최초, 최대는 물론 최고라는 명예로운 수식어를 향시 앞에 두는 국립공원이 있다. 1978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광대하고 아름다운 엘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다.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의 세 배가 넘는 약 220만 에이커 규모로 북미 최대 산중호수를 품고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 높이의 2배가 넘는 폭포, 세계 간헐천의 70%, 1만여 개가 넘는 온천을 지니고 있다. 1만 피트가 넘는 산봉우리는 45개나 있다.

최고라 칭해지는 이유는 특이한 자연경관과 그 속에서 마음 놓고 뛰노는 야생동물 덕이다. 엘로스톤은 수십만 년 전의 화산폭발로 이뤄진 화산고원지대로 마그마가 지표에서 불과 3마일 깊이에 있어 그 어느 곳과도 비교될 수 없는 다채로운 자연경관을 생성하고 있다. 초원과 늪지, 강과 호수, 산과 숲, 황야와 협곡, 간헐천, 온천, 폭포, 기암괴석 등을 한번에 만날 수 있다. 특히 폭발하듯 분출하는 간헐천과 우레 같은 소리를 내는 폭포는 자연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 주고 겸손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준다.

군데군데 만나는 야생동물들은 엘로스톤 국립공원의 최고의 자랑거리이고 볼거리이다. 들소(Bison), 사슴(Elk), 로키양(Bighorn Sheep), 회색곰(Grizzly Bear), 물수리(Osprey), 흰 펠리컨(White Pelican) 등 수많은 야생동물이 유전자적 자연과 어우러져 산다. 엘로스톤이란 명칭은 오랜 세월 지하에서 분출된 광물성 온천수가 바위 위로 흘러내리면서 바위의 표면을 노랗게 변색시켜 붙여진 이름이다.

와이오밍(Wyoming) 주 북서쪽에서 몬태나(Montana) 주 남서부, 아이다호(Idaho) 주 남동부까지 세 주에 걸쳐 있는 엘로스톤은 전체 면적의 96%가 와이오밍 주에 속해 있다.

입구는 다섯 개로 서쪽 아이다호 주의 웨스트 엘로스톤으로 들어가는 서문, 남쪽 그랜드 티턴(Grand Teton) 국립공원과 연결되는 남문, 동쪽 암사르가 황야로 빠지는 동문, 루스벨트 아치로 불리는 북쪽 몬태나 주의 북문과 실버게이트로 불리는 북동문이 있는데 대부분이 서문으로 들어와서 엘로스톤을 일주한 뒤 남문으로 빠져나간다. 그 이유는 남문 아래 위치한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의 경관이 엘로스톤 못지 않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엘로스톤은 완벽하게 돌아보기 위해서는 '589'를 기억하자. 엘로스톤의 주요 볼거리는 5개 컨츄리에 걸쳐 산재해 있으며 도로가 8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에 겹치지 않고 돌아볼 수 있다. 여행은 8자코스를 따라 돌면 되지만 9개의 관람포인트를 놓치지 말자. 5개 컨츄리, 8자코스 따라 펼쳐진 대자연의 파노라마를 살펴보자.

▶웨스트 엘로스톤(West Yellowstone)

들어서자마자 첫눈에 보이는 것이 땅에서 솟아나는 하얀 수증기와 1988년 발생했던 대화재의 흔적이다. 전체 산림의 절반이 화마에 삼켜졌던 흔적은 자연의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며 되살아나고 있다. 아기 소나무가 어른 키만큼 힘차게 자라고 있으며 엘크가 뛰노는 광경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서쪽 입구에서 아이맥스 영화를 볼 수 있으며, 메디슨 정션 부근의 파이어홀 캐년 드라이브 도로를 이용하면 파이어홀 폭포와 그림 같은 주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올드 페이스풀(Old Faithful)

간헐천이란 뜨거운 물이 모여서 주변의 토양과 어울려形形色색의 분화구 형태를 이룬 곳이며 땅 밑에서 만들어진 증기가 분출되고 다시 주변 토양의 약화로 아래로 가라 앉기를 반복하는 특이한 형태의 토양구조물이다.

엘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간헐천들 중 압권은 단연코 올드 페이스풀이다. 하루 17~21회, 65~90분 간격으로 매번 약 8400갤런의 엄청난 온천수를 160피트 높이로 4분 정도 뿜어낸다.

공원 내 1만여개의 간헐천 중 이처럼 분출 간격이 규칙적인 것은 없다. 분출 예정시간은 올드페이스풀 비지터센터(www.nps.gov/yel/, 307-545-27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출 시간이 가까워 오면 많은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장관을 이루며 어두워지면 조명도 비춰준다.

▶미드웨이 간헐천 분지 (Midway Geyser Basin)

다른 간헐천 분지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크기가 190 x 295 피트에 달하는 익

셀시어(Excelsior) 간헐천과 엘로스톤에서 가장 큰 온천인 그랜드 프리즈매틱(Grand Prismatic Spring)이 있기에 빼놓지 말고 들러야 한다. 익셀시어 간헐천은 1985년, 47시간 동안 분출을 계속한 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1분에 약 4천 갤런 이상의 온천물을 차가운 파이어홀 강으로 폭포처럼 쏟아내며 수증기를 만들어낸다. 미드웨이 간헐천 분지에 놓여진 나뭇길을 따라 약 0.5마일 길을 둘러보면 된다.

▶노리스 간헐천 분지 (Norris Geyser Basin)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간헐천이 모여 있다. 불과 900피트 밑에 용암이 있기 때문에 간헐천의 수온이 높고 변화가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간헐천에서 나온 물들이 연못처럼 고여서 만들어진 것을 베이스(basin)이라고 하는데, 주변의 토양에 따라 총천연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척 매력적이다. 노리스는 '전시장'이란 별칭이 있을 만큼 간헐천, 베이스, 조그만 화산분화구 등 볼거리가 다양하다. 유명한 간헐천은 세계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증기의 분출을 보여주는 스팀보트(Steamboat)와 에메랄드 빛의 영롱한 물빛이 매력적인 에메랄드(Emerald Spring)이다.

▶맘모스 핫 스프링 (Mammoth Hot Spring)

엘로스톤에서 가장 환상적이고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곳이라면 단연 맘모스 핫 스프링이다. 이 곳은 땅 밑에서 분출되는 뜨거운 석회질 온천수가 계단을 이루며 흘러내리는 매우 특이한 형태이다.

뜨거운 석회질의 온천수는 수증기를 뿜고 그대로 응고되어 하얀 소금덩어리처럼 보인다. 맘모스 핫 스프링은 해발 6200 피트 지역에 있다. 산을 올라가며 빙글빙글 설치된 나뭇길은 2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다. 12명이 화상으로 죽고 수 백명이 치명상을 입었다고 하니 나뭇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자. 이 지역 최고의 볼거리는 로위 테라스이다. 석회암과 간헐천의 화학작용으로 기묘한 형상의 구조물이 주변경관과 어우러져 기묘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로위 테라스 위쪽 아퍼테라스는 현재는 활동을 멈춰

그다지 볼거리가 없으니 차로 지나가며 둘러봐도 충분하다. 가장 규모가 큰 메인 테라스는 현재는 물이 말라서 굳은 석회암 계단일 뿐이지만, 메인 테라스에 있는 길따라 끝까지 올라가면, 아직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캐너리 스프링을 볼 수 있다. 계단식 석회층을 따라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엘로스톤의 그랜드 캐년 (Grand Canyon Of The Yellowstone)

엘로스톤 강이 만들어 낸 대협곡으로 엘로스톤의 진수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이곳을 꼭 들러야 한다. 이 협곡의 관람포인트는 아퍼 폭포(Upper Falls), 로어 폭포(Lower Falls)가 이루는 2단 폭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느냐이다.

하이라이트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두 배 높이를 자랑하는 로어 폭포 구간이다. 캐년 빌리지 남쪽 노스림(North Rim)의 룩아웃 포인트(Lookout Point)에서 높이 308피트의 웅장하고 거대한 로어 폭포와 그보다 규모가 작은 아퍼 폭포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우스림(South Rim)의 아티스트 포인트(Artists Point)에서도 이 폭포들을 구경할 수 있는데 같은 경관이지만 다른 느낌의 감흥을 주니 꼭 두 관람포인트를 모두 가볼 것을 추천한다. 암록색 물줄기가 협곡 사이로 흘러 계속 아래로 2단으로 나뉘어 떨어지면 하얀 물보라가 일어나고 물보라 따라 바위틈 사이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황홀한 장면이 연출된다. 물의 조화가 빛어낸 거대한 예술은 아티스트 포인트에서 봐야만 그 감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웨스트 썸(West Thumb)

그랜드 빌리지 비지터 센터 위쪽에 위치한 웨스트썸은 산중 호수 중 북미 최대 규모인 엘로스톤 호수와 접해 있으며 연안 따라 뜨겁게 끓어오르는 간헐천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이 곳의 간헐천들은 물이 흘러나오는 구멍들이 보일 정도로 맑고 토양과의 화학 작용에 따라 다양한 색을 보인다. 이름 그대로 어둠의 깊이를 느끼게 해 주는 블랙풀(Black Pool), 수십 가지 색조를 띄고 시시각각 변하는 어비스(Abbyse)가 인상 깊다.

자료제공 : 

LIFE IS TRAVEL

**고마운 분께 여행을 선물하세요.
여행만큼 받는 분이 고마워 하는
선물은 없습니다.**

받는 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만해도 즐겁습니다.
드리는 분의 정성에 고마워하는 모습을
상상만해도 마음이 따뜻해 집니다.
아주관광 여행상품권 -
최고의 선물은 '여행' 입니다.

**아주관광
여행상품권!**

1-800-933-3011 | 서울 02-522-8686, 070-7449-9100 아주쿠루즈: 213-388-7000 동부: 800-956-3939 토렌스: 310-217-0770 O.C/샌디에고: 800-994-1233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Excel Legal Center(엑셀법률센터)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혼인, 이혼, E2 투자
- 민사, 퇴거(Eviction), 파산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소액재판(small court claim)

☎ 213-365-6622 (67+ 사무스베일러앤코퍼레이션 한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 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 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높고 중급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화,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 사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us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부/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영양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종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종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란디 신한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499

햇빛차단 Low-E3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스마트 월드

FUJITA 카멜레온 커버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니! 자동차 핸들 커버 \$30

음이온 살리니! 자동차 핸들 커버 \$30

출몰 운전 때문에 교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 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www.myopenbank.com



이 아이에게
물려 주고 싶은건
나눔의 아름다움입니다.

Min Kim
회장



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재단]에서 드리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기독교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접수기간: 2012년 12월 31일까지 | 발표일자: 2013년 2월 28일

지원금 수혜자는 오픈뱅크 웹사이트, 신문광고 및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www.myopenbank.com



213.892.1197 | 1000 Wilshire Blvd., # 250, Los Angeles, CA 90017



*Open Stewardship 재단이란?

Open Stewardship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입니다. 동 재단은 매년 오픈뱅크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오픈뱅크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종래의 기금제공 방식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2012년도 마지막 재고 폭탄세일!

몇대 남지 않은 2012년도 모델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012 Equus Ultimate (STK #051811)

UP TO \$14,400 D/C

Lease For 629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5,999
(Include Military, Comp., College Rebate)

- MSRP 66,650 • MILITARY REBATE 500
- PH HYUNDAI D/C 11,000 • COLLEGE REBATE 400
- COMP. REBATE 2,500 • NET PRICE 52,250 *Demo Model



2012 Genesis 4.6 (STK #175330)

UP TO \$10,000 D/C

Lease For 409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5,999
(Include Military, College Rebate)

- MSRP 45,535 • MILITARY REBATE 500
- PH HYUNDAI D/C 9,100 • COLLEGE REBATE 400
- NET PRICE 35,535



2012 Veracruz Limited (STK #193315)

UP TO \$8,500 D/C

Lease For 219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5,999
(Include Military, Comp., College Rebate)

- MSRP 37,275 • HMFC REBATE 1,000
- PH HYUNDAI D/C 4,100 • MILITARY REBATE 500
- COMP. REBATE 1,500 • COLLEGE REBATE 400
- HMA REBATE 1,000 • NET PRICE 28,77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6



Sales Manager 저스틴 김
626.513.4580



고객상담 제니 김
626.513.4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